

於斯夏

(第5號)



横城文化院

於斯夏

(第5號)

橫城文化院



표지의 말

어지러운 시간들이 지나갔다.
3.1 운동에서 최근의 칼기폭파
까지의 어려움, 우리에게 시련기
적 공간을 시험하였나?
이제 더 많은 일이 기다린다.
고목에서 새로운 싹이 다시 돋
는 힘은 우리 민족의 근성이라
던가!
88 올림픽을 축하하며 새로운
움을 티우도록 군민 모두 힘써
야 할 이 시점에서

橫城郡民憲章

우리 橫城은 우람한 泰岐山의 氣象과 悠悠히 흐르는 섬강의 精氣를 받은 고장으로 豐饒를 謳歌하며 人情을 나누면서 子孫萬代가 살아갈 永遠한 삶의 터전이다.

이땅에사는 우리는 先烈의 드높은 抗日 救國 精神과 愛鄉心을 이어받은 자랑스러운 郡民으로서 創意와 예지를 한데 모아 살기좋은 새 橫城建設의 主人으로 身命을 다할것을 다짐한다.

첫 째 : 우리 郡民은 항상 反省하고 부지런히 배워 참되고 바른 사람이 된다.

둘 째 : 우리 郡民은 서로믿고 사랑하며 英才를 키우는 福된 家庭을 이룬다.

셋 째 : 우리 郡民은 어른을 尊敬하고 이웃을 아끼며 웃음이 넘치는 마을을 이룬다.

넷 째 : 우리 郡民은 地域特性을 살리고 科學的 研究와 實踐으로 豐饒로운 내고장을 만든다.

다섯째 : 우리 郡民은 正直, 秩序, 協同의 生活化로 맑고, 밝은 社會를 이룬다.

여섯째 : 우리 郡民은 崇高한 3.1精神을 이어받아 나라에 忠誠하는 國民이 된다.

횡성군의 노래

방 직 현 작사

노 명 석 작곡

태 기 - 산 뻗 은 즐 기 덕 고 - 의 정 기 모 아
 운 암 - 정 청 탄 아 래 횡 성 - 교 밧 겨 있 고
 교 통 - 의 심 장 부 로 사 방 뻗 은 동 껍 의 길

앞 들 - 의 넓 은 옥 토 부 강 을 자 랑 하 고
 태 풍 - 루 반 송 터 는 옛 일 을 아 껴 는 듯
 경 향 으 로 사 통 오 달 거 리 가 즐 비 하 고

동 서 로 - 구 비 친 강 무 준 히 - 흐 르 는 곳
 나 낙 장 송 넓 은 숲 에 흥 익 정 신 가 득 한 곳
 전 통 의 - 산 업 정 신 부 흥 을 - 꾀 하 는 곳

아 름 다 운 이 - 강 산 에 빛 나 는 우리 횡 성

목 차

군민현장	
화보	
목차	
권두언	
◆ 문화의 민주화와 자율적 참여/한중희	5
논단	
◆ 지방화시대를 열자/김정기	6
초대석	
◆ 농촌 청소년 교육에 관한 일고/조진행	10
◆ 경로효친의 윤리/최성침	13
면담	
◆ 자녀와의 대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류장희	15
향토사	
◆ 그 날의 함성/박순업	18
연구	
◆ 의병장 최인순/박순업	27
◆ 강림 태종대와 원천석의 교사/조상현	32
◆ 의병총 앞에서/최성침	37
◆ 횡성의 성씨/편집실	39

문 예 란

◆ 청자항아리/곽영기	49
◆ 송광사에는/곽영기	50
◆ 석양에/곽영기	51
◆ 초상화/곽영기	52
◆ 어느 여인의 상심처럼/이진우	53
◆ 개 화/김성수	56
◆ 은장도/김성수	57
◆ 눈 내린 밤에/김양수	58
◆ 병실에서/송영수	59
◆ 어사매 사랑/김종구	60
◆ 사랑이 앙금되어/권용환	61
◆ 고담은 이순의 고개/김기원	66

학 원 문 예

◆ 나의 고향/박현숙	67
◆ 나의 고향/이용미	68
◆ 어 사 매 /이도경	69
◆ 두레박에 담긴 고향/원순진	70
◆ 옥시기/심철호	71
◆ 나의 고향/이상순	72
◆ 나의 고향/이보람	73
◆ 발전하는 내 고향/조성란	74
◆ 뒷 동산 산마루에 앉아/연정미	75
◆ 향수에 젖은 고향/한지혜	77
◆ 내 삶과 사랑의 시작/원지연	79
◆ 서원면 순례기/한기자	82

화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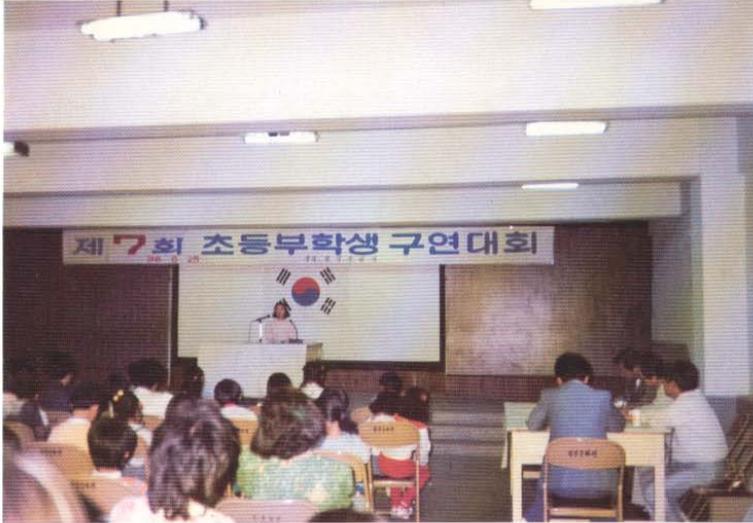


88년도 상반기 경로 효친 사상 선양 교양강좌 실시



제 7 회 청소년학생 사생대회가 횡성 3.1 공원에서 800여 초. 중. 고. 남녀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화 보



제 7 회 초등부학생 구연대회가 많은 학부모가 참관한 가운데 문화원 강당에서 기행되었다.



88년도 상반기 문화행사에서 수상한 학생들 일동

화 보



제 4 회 향토문화상 시상을 하는 한중희원장



88 서울 올림픽 성화봉송 인계 인수장면
황성 3.1 광장에서 (88.9.12)

화 보



마을 농악 경연대회 개회식광경



마을 농악 경연대면 (갑천면 하대리 농악대)

地方化 時代를 열자

머리에

地方이란 변두리다. 또한 中央이란 말에 相對된다. 우리나라는 5천년의 歷史를 통해 王政時代를 거쳐 45年度에 解放된다. 解放된 後에도 올바른 民主主義를 못하고 第1共和國時代(初代 李承晚 大統領)부터 第5共和國를 거치는 동안 이렇다할 地方化 時代를 못 가져왔다.

다만 第2共和國 時代에 몇달간 道와 市郡 邑面 議會를 構成하면서 처음으로 地方化가 열렸지만 ㅅ이 나자마자 말라 버려 季節風처럼 스쳐 지나가버려 오히려 없었으니 만도 못했다.



橫城文化院
副院長 金鼎基

이제 第6共和國이 87年 6.29 宣言으로 始作되면서 또 與小野大의 政局이 이룩됨과 더불어 本格的인 地方化時代가 되는가 보다.

中央에서 政治人들이 地方自治가 實施돼야 野黨이 뿌리를 내려 民主主義가 定着된다고들 한다. 우리들은 地方에서 살고 있으며 生活基盤도 이고장이다.

우리의 指導者를 우리 스스로 뽑고 또 選出하는 期間에는 막걸리도 얻어먹고 待遇도 제법 받으니 이것이(指導者 候補들의 굶신거림) 民主化거니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民主主義는 權利에 相應하는 義務가 뒤따름을 알아야 한다.

自治化가 되려면 우리를 指導할 各種 指導者를 選出하는 權利의 이면에는 그 指導者를 보필할 義務가 있음을 強調한다. 또한 自治라는 말속에는 우리 郡의 살림살이를 할 財政을 負擔할 責任이 있음도 명심해야 된다. 勿論 國稅를 地方稅로 바꾸어 稅金을 거두어 施行하면 되지만 어쨌거나 自治制가 되면 稅金負擔이 는다는 것은 自明하다. 그렇다면 都市에서 5億을 가진 사람이 무는 稅金 負擔額과 地方에서 5億所有者의 擔稅率은 差異가 있어 적은 고장이 더 크다. 이것이 長期化 될경우 地方의 大資本能力者(5億以上)는 大都市로 移住해가버리는 反 愛鄉者가 안 생기라는 悞則은 없다. 이제 어떤 사람이 指導者가 돼야 하며 어떤 사람을 指導者로 또한 指導者는 어떻게 地方을 이끌어감으로서 地方化時代를 열어갈지 이야기 해본다.

本 論

(1) 地方의 指導者像

첫째는 超黨의 愛鄉心의 所持者라야 된다. 日本서 처음으로 地方自治를 實施할 때 候補者의 所屬政黨을 보고 그 黨所屬政黨員들이 모두 票를 몰아주어 當選시켰다. 그랬더니 마치 中央의 國會를 地方에 옮겨 놓은것같이 所屬政黨의 黨利黨略에만 致重하는 地方議會가 돼버렸다. 結果는 地方發展은 고사하고 市長이나 郡守, 教育長 各 組合長들이나 官廳 公務員들의 壓力團體로 탈바꿈 했으며 各政黨所屬 議員들이 여러 갈래 壓力으로 오히려 中央集權 때보다도 더 後退한 例로 나타났다. 地方議會 議員은 故鄉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우선 資格未達이다. 平素에 地方을 위해서 굶은 일은 마다하고 돈 벌이 事業이나 權力行使나 높은 座席에만 앉고 싶어하는 心性을 가진 사람은 地方 指導者의 資格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더구나 議員자리를 利用하여 親知의 취직부탁이나 하고 拒絶當하면 모략이나 일삼는 小人輩는 資格未達임을 銘心해야된다.

反面에 郡民 全體의 利益을 가장 重要視하고 다음으로는 어느事業이 보다 많은 郡民들의 公益과 關係있는가를 가려서 優先順位로 開發할줄 알아야 된다.

마을에 따라 土壤調査를 實施하고 어느作物이 그土壤 적성에 맞으며 商品性이 있는지? 등을 研究케 하는데 까지 소상하게 地域住民의 所得도 開發하는 熱性도 基準이 된다.

또한 指導者는 自己所屬의 政黨이나 係列의 團體만을 爲해서 일하기보다 不遇하고 가난하거나 無能力한 이웃을 사랑할줄이는 愛鄉心과 愛族心의 所有者여야 적합하다.

둘째로는 能力이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 地域에 公的 所得을 올려 地方稅源을 높여 地方住民의 稅金負擔을 줄여주면서 地域發展을 圖謀하는것도 能力에 속한다. 또한 우리郡內 居住 學生들이 外地(都市)에 나가서 工夫하지 않고 우리고장 學校에서 工夫해도 좋은 大學에 合格시킬 수 있는 1等學校로 키우느냐?도 能力과 通한다. 例를 든다면 工場을 유치하되 公害없는 工場을 끌어오고 또 우리고장 住民의 고용확대를 늘릴 수 있는 工場유치도 能力이다.

골프장을 유치해서 많은 稅金源을 開拓하며 郡有林을 어떻게 活用함으로써 郡收入을 늘일 수 있는 아이디어도 能力이다. 大局으로는 우리고장을 全國에서 가장 살기 좋고 공기맑고 쾌적한 小邑으로 가꾸어 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觀光과 遊興 내지는 휴양지로 만들어 가난한 住民들은 稅金を 적게 물으면

서 잘살게 만드느냐도 指導者의 能力이다. 또한 中央에 있는 有力人士들과 交遊하며 中央資金을 많이 끌어다 開發할 수 있는 品性이나 活動性도 能力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能力者들이 앞으로 議會나 自治團體長으로 選出 指導者 그룹을 形成할 때 이 고장은 無限한 發展이 約束된다.

(2) 指導者를 選擇하는 郡民力量

첫째 指導者가 훌륭하면 地方發展은 必然的이다. 훌륭한 指導者가 많으면 選出하는 郡民들은 골라잡기만 하면 된다.

훌륭한 指導者中 누구를 뽑을 것인가? 그리 쉽지는 않다. 우선 말과 生活(實踐)이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 “나는 하늘 텅(天)해도 너는 하늘 천(天)하라”는 말 자체가 다르게 指導하는 사람은 支配者이지 指導者는 아닌데 말자체를 잘못 지도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대개의 境遇 말은 愛國, 愛鄉, 愛隣하면서 自己는 實踐하지 않고 남을 無視하고 뒷자리에 그리고 앞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한발자욱 먼저 서기를 좋아하며 稅金을 免脫하며 숨어서 謀略하고 이웃을 짓밟으려는 行動을 하는 사람은 안된다. 自己의 慾心만을 채우려고 利權運動을 일삼으며 남의 自由를 짓밟고 自己 固執만을 남에게 強要하는 사람, 남의 돈은 잘 떼어먹거나 外上값을 갚지않고 받을 돈만 챙기는 사람도 적함치 않다. 위에 나열한 反對인 言行이 一致하며 우선 家庭을 和睦하고 단란하게 하며 돈이 없어도 이웃을 사랑하고 特別히 불쌍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意志를 實踐하는 사람이 指導者의 品性이다.

둘째 이런 훌륭한 指導者감이 없거나 모자랄때는 郡民이 길러내야 한다. 1년이 걸리던 24년이 걸리던 우리의 指導者를 키워나가야 한다. 밤나무, 복숭아 나무는 3년이면 열매 맺고 잣나무의 경우 10년이 걸리며 落葉松이 30年後에야 收穫하듯이 사람을 기르는데는 24년이 걸리며 다 큰 사람은 그의 短點을 忠告해주고 失手할 때 타이르고 失意에 빠지거나 困境에 處했을 때 격려해 주며 가지고 있는 그의 長點을 살려 나가도록 힘을 돋우워줌으로서 不足한 指導者를 더욱 훌륭하게 키워서 뽑는길이 좋다.

셋째로는 地方色의 타파이다. 人間은 누구나 血緣이나 人緣, 地緣을 따지고 가워진다. 이것은 이웃을 빨리 새겨서 더불어 잘 살아가려는 大 目的때문일진데 너

무 地緣을 내세우다 보다 훌륭한 指導者를 찾지못한다면 지 血緣에 빠져 5 共和國과 같은 非理를 저지르지 말아야된다. 學緣을 너무 앞세우다 마침내 自己 협소증에 함몰해가는 愚를 犯하지는 말아야 한다.

(3) 指導者의 길

첫째, 住民을 잘살게 하기위해 郡民의 公益에 힘써야 될것이다. 優先 地方財政 自立度를 높이기 爲해 稅源增加에 힘쓴다. 어떻게 해서 外部에서 우리 地方으로 資源이 들어올 수 있게 한다음 研究해서 사람이 끊고 돈이 끊고 그 돈이 우리 地方에서 回轉하면서 稅증가와 연관짓느냐를 도모해야 한다.

둘째 地方開發을 위해 어떤것이 더욱 많은 住民에게 益되느냐와 더급하나? 의 序列에 따라 일을 處理함이 좋다.

셋째는 住民의 意思를 尊重함으로서 獨善을 버려야 한다. 어떤 小數의 意見이나 힘없는 個人의 意見도 參考하는 것이 指導層의 態度이다. 여기에서 上下와 周圍의 團結이 성취된다.

넷째로 後繼者를 養成해야 된다. 우선 管內 各級學校를 우수교로 만들어야 우수人材를 키울 수 있다. 學父兄들이 外地에 유학시키는 돈을 地方學校 施設과 教師(優秀) 招聘에 써야 된다. 1年이나 3年程度로는 안되며 먼 將來를 바라보고 10年 30年 걸려서라도 實踐하고 우선 기성세대인 住民이 模範을 보여야 된다. 다음은 교사들이 學生들에게 垂範이 되어 한다. 言語使用부터도 본을 보이며 實力提高에 힘쓰며 공부하고 싶은 환경조성에 힘써야 된다.

學生들에게는 도서관을 비롯한 공부환경을 造成해주고 내故鄉을 위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意志를 심어주고 그 意志達成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어 주어야 된다.

結 論

훌륭한 指導者와 이들을 뽑아내는 郡民이 혼연 일체가 되고 地方化時代에 對備 찬란한 文化를 꽃피우고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어 갈때 우리들의 2世들은 더욱 열심히 努力하게 되어 아름답고 살기좋은 代물됨이 이룩될 것을 確信한다.

農村靑少年教育에 關한 一考

橫城郡教育廳

教育長 趙 振 行

人間을 다른 動物과 다르다고 하는 緣由를 찾으려면 研究하는 學問이나 分野에 따라 다르기에 “教育받은 動物이 人間이다.”라고 定義했다고 해서 過히 큰 나무람은 받지 않을상 싶다.

그러면 人間外의 다른 動物은 教育을 받지 않느냐고 억지 反問을 한다면 그것은 訓練이지 教育이 아니다.

적어도 教育이라면 意圖的, 體系的, 論理的으로 定立된 普遍妥當性 있는 知識을 말하겠기에 말이다. 또 이렇게 받은 教育은 實生活에서 活用되고 適用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人間은 반드시 教育을 받아야만 그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現代社會에 들어와서 社會는 急激히 變化해 가고 科學은 宇宙化 最尖端化로 舊의 知識은 새로운 知識에 依해 壓倒되어 낡은 知識으로 轉落하게 된다.

옛날 教育에 있어서는 20 ~ 30 年을 내다 보는 教育이었다.

即, 무슨 말이나 하면 一般 教育을 받으면 그 知識으로 20 ~ 30 年間은 새로운 知識을 받아 들이지 않아도 社會生活을 해 나갔다는 말이 되겠다. 그러한 現象은 教育뿐 아니라 教育計劃을 樹立하는 教育行政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現代社會에서는 하루 한 時間이 멀다하고 낡은 知識은 새로운 知識에 壓倒되고 새로운 知識이 洪水처럼 쏟아져 나오는 世上으로 바뀌어지고 말았다.

現代가 그러할진데 未來는 어떠할까?

누구도 豫言壯談 못한다.

그러나 한가지 分明한 것은 보다 많은 知識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學校 教育이나 社會教育이나 옛날처럼 한낱 知識의 傳達方法이어서는 터무니 없고 또한 力 不足이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기에 平生教育이란 教育用語가나

오기 始作한 것이 벌써 오래된 일이다.

教育에는 “王道”가 없는 法이다. 우리나라는 世界 어느나라도 追從을 不許할 만큼의 父母들의 教育熱은 大端한 것이다. 勿論, 이러한 現象은 國家와 民族이라는 巨大한 次元에서건 우리내 父母들의 “나는 못 배웠더라도 子息만이라도”하는 補償心理에서 건 어쨌든간에 世界的이며 이것이 바로 先進祖國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밑알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간에 現代 우리나라 農村 靑少年의 學力은 그 어느나라 農村 靑年에 比해서도 뒤지지 않는다고 나는 본다. (나는 學力을 單純한 學歷으로만 理解하고 싶지는 않다. 學力의 形成은 學歷도 重要한 部分을 차지하지만 社會年輪 讀書, 經驗, 體驗等 複合的인 要素로 構成된 것이라고 나는 보고싶다.) 이런 意味에서도 우리나라 農村靑少年에게는 平生教育이 보다 더 切實하게 느껴진다. 實質 우리나라는 옛부터 農耕文化體制의 社會構造속에서 成長해 오다 이 農村經濟體制가 채 成熟도 되기前 갑작스러운 近代化過程에서 工業經濟體制로 急變遷했기 때문에 農村에 여러가지 問題點이 없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宿命으로만 돌리고 座視할 수만은 없는 問題다.

그렇다고 國家에다 대고 農業政策이 어떠한지 그렸느니 남의 탓만 하고 是是非非를 論해봤자 쉽사리 解決될 問題는 아니다.

要는 어떠한 方法이건간에 살기좋은 農村을 建設해야겠다는데 대해서는 누구나 異論은 없을 것이다. 살기좋은 農村이 되자면 所得이 늘어 經濟的으로 윤택해져야 겠지만 經濟의 윤택은 누가 그저 가져다 주는것은 결코 아니다. 投資에 對한 合理化 生活規模와 分수에 맞는 生活 肯定的인 思考와 하고자 하는 意志와 意慾에 關한 教育이 先行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意志와 覺悟만 있으면 營農技術의 未治, 營農資金의 不足等等은 그리 問題가 되지 않을 程度의 水準이 現 우리 國力이요, 農村現實이라고 본다.

이런 教育을 누가 어떻게 시키느냐에 關해서는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王道”는 없다. 技術分野라 할 것 같으면 組織集團教育도 效果가 있겠지만 精神教育 乃至 情意教育(意志)에 있어서는 地域單位 “또래”(同僚)를 中心으로 하는 自生씨름과 活動의 效果는 그 어느 質 좋은 組織集團教育 보다도 效果의 일 것이다. 우리 農村 靑少年 教育에 있어서는 이러한 精神姿勢 意志教育이 先行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物質的인 補

◎초대석◎

償, 福利, 融資 政策等等的 施惠도 그리 큰 效果를 보지 못하고 때로는 依他心, 찰나主義, 享樂主義의 환각에 사로잡힐 危險性마저 內包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이제까지 그러한 集團的 組織의인 活動만을 農村 靑少年 敎育이라 해왔고 때로는 많은 投資를 해왔다. 그러나 그 結果는 投資에 比해 期待만큼의 큰 보람은 없었다.

앞으로 훌륭한 指導者를 養成하고 “또래”를 中心으로 하는 自生씨를 보다 活性化하고 現場敎育에 보다 많은 投資와 關心을 갖아야 할 時代라고 본다.

이 길만이 우리 農村을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라 본다.



敬老孝親의 倫理

書院國民學校

校長 崔聖琛

自古로 孝를 百行의 根本이라 하였다. 卽 孝道란 모든 行實의 根本基調가 된다는 뜻이다. 故로 重要한 孝道가 오늘에 와서 다시 強調됨은 核家族化 趨勢에 따른 老父母 扶養이 漸次 疎忽해짐을 慨歎하는 나머지 옛 傳統倫理의 復興이 時急하다는 事理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孝經에 “身體髮膚受之父母 下敢毀傷, 孝之始也.” 卽 몸, 머리털, 피부는 이를 父母한테 받은 貴重한 것이니 敢히 몸에 傷處를 내지 않은것이 孝의 始作이다.

다음 “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 故리하여 사람으로써 마땅히 지켜야 할 德을 갖추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며 後世에 까지도 드날려 父母의 이름을 드러나게함은 孝의 끝이다. 다시말하면 立身出世하여 父母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孝道의 最終完成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孝가 어떤 意味로는 새로운 家庭倫理再建을 爲해 提起되고 있음을 볼 때, 漸次 擴大하여 敬老의 精神으로 波及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事實 眞情으로 父母를 사랑하는 사람은 敢히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父母를 尊敬하는 사람은 敢히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 法이다. (愛親者不敢惡於人, 敬親者不敢慢於人) 여기서 비로소 敬老思想이 싹트게 된다. 卽 愛敬은 곧 孝道의 基本이요 父母를 眞情으로 사랑하는 따뜻하고 情이 깊은 사람은 自然히 다른 父母 모든 老人을 尊敬하게 되는 것이니, 孝야말로 百行의 根本이 되는 것이다.

及其也 孝誠으로써 임금(國家)을 섬기면 곧 忠義가 되는 것이다.(以孝事君則忠) 다시 말하면 父母님에게 孝誠을 다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임금(나라)에게 성긴다면 그것이 곧 忠義가 되는 것이다.

忠도 孝와 한가지로 그 根源을 愛敬에 두고 있으며 忠孝가 둘이 아니라는 思想도

◎ 초대석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不孝의 罪를 五刑之中에서 가장 으뜸으로 여겼으니 우리가 깊이反省할 일이다. (五刑之層三千, 而罪莫大於不孝)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살아 生前에는 愛敬으로 모시고 돌아가셨을 때는 愛悼함이 또한 돌아가신 父母를 섬기는 禮다. (生事愛敬 死事哀感)

事實 父母가 돌아가셨을 때는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마음이 卞安하지 못하고 흥겨운 音樂을 들어도 즐거운 마음을 모르며 진수성찬을 대해서도 입에 쓰기만 하다. 그것이 사람의 常情이다.

이제까지 나는 父母를 모시는 道理를 叙述해 보았다. 우리는 于先 愛敬으로 父母를 모시면 敬老는 저절로 이룩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生我者도 父母요, 養我者도 父母임에는 틀림없거니와 어떻게 하면 孝道의 根本倫理를 現代 우리 社會에 再照明하여 具現할 수 있겠는가가 問題다.

다시 附言하거니와 우리의 몸은 父母의 遺體의 一部라는 血肉의 情을 일깨우고 刻苦의 努力을 쌓아 옳은 行實을 닦고 社會에 貢獻할 수 있는 有爲한 人材가 되는것 結局 立身揚名하는 길이 父母의 이름 卽 後光을 드높이는 終局의 孝道라는 大原則을 固守하는 길만이 敬老孝親의 倫理를 몸소 實踐하는 길이라 믿는다.

※ 孝親詩

애처롭다 그리운 우리 父母님
나를 낳고 갖은 고생 다 하셨네.
(哀哀父母 生我劬勞)



子女와의 對話는 어떻게 할 것인가?

류 장 희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착하고 부지런하고 예의 바르게 자라기를 바란다. 부모들의 이러한 바람대로 잘 성장하는 자녀가 있는가하면 정반대로 잘 못되어 가는 자녀도 있다.

어떤 가정은 부모가 학력도 높고, 경제적 능력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꽤 있는데도 그 자녀는 삐뚤르게 자라 비행 청소년이 되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부모가 별로 배우지도 못했고 가난하며 별다른 지도를 하지 않는데도 자녀는 구김살없이 바르게 자라며 칭찬받는 청소년이 되는 경우도 있다.

왜 그럴까?

여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 그 가운데서도 가정적 요인이 크게 작용함은 물론이요 더욱이 자녀와의 일상적인 대화가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부모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부모의 마음은 다 같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대화의 방법은 모두 다르다. 자녀들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경험들로 부모와 자녀간에 이루어지는 몸짓, 표정 등이 자녀들의 성격과 지능,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부모들은 이를 알고 대화에 조심 하여야 한다.

부모들이 자녀와 나누는 대화의 형태를 분석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설교형

부모의 의견을 무조건 받아드리도록 요구하는 형으로 “네 일은 네가 해라” “하루에 두시간씩 공부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 “교회에는 왜 안가니” 등 이러한 대화는 자녀의 욕구가 무시되며 심리적 불안을 가져온다.

또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저하 시킨다.

2. 복고형

부모들 자신의 옛날을 자꾸 말하는 형으로 “내가 어릴때 이런 반찬이 어디 있어? 호강에 겨워 안먹지” “달라는 돈 다주고 학용품 다주고 하는데 공부는 왜 못해? 난 얼마나 고생 했는지 알아?” 등.

이런 말은 세대에 대한 반감을 느끼게 되고 부모님 말은 잔소리로 생각하여 진지하게 들으려 하지 않는다.

3. 협박형

자녀들을 위협하여 바로 잡으려하는 형으로 “그따위로 하면 혼날줄 알아!” “한번더 그짓하면 죽여 버릴테야!” 등 이런 대화는 반항감을 갖게 만들고 도피와 회피행동을 하게하며 부모를 멀리 하게 된다.

4. 심문형

죄인 다루듯 다그치는 형으로 “너 날 속이려고 그러니? 바른대로 말해!” “네 속 다알고 있어” 등 이런 대화도 넘겨잡는데 대해 반항감을 갖게되며 부모의 해석이 틀릴때 부모에 대해 미워하게 된다.

5. 비교형

형제나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 수치심을 주고 적개심을 주는 형으로 “옆집에 칠수좀 봐. 얼마나 공부를 잘하니, 너는 왜 그모양이야?” “너의 동생은 저렇게 잘 하는데 너는 왜 칠칠맞아?” 등 이런 대화는 열등감을 갖게 하고 칭찬한 상대에 대해 적개심을 갖게하며 부모를 미워하게 한다.

6. 과잉 보호형

지나치게 감싸 주는 말투로 “아빠 모두 다 해줄 터이니 너는 공부만 해라.” “그건 내가 할게 넌 하지 마라” “넌 잘못도 없는데 선생이 왜 때려?” 등 이런 대화는 독립심을 잃게하고 이기주위적이며. 연약하게 만든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대화가 있으나 대표적인 몇가지만 예로 들어 보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대답은 매우 어렵다. 상황과 대상과 때와 장소에 따라 적절한 대화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 원리 몇가지만 밝혀보자.

첫째,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도록 하여야 한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말만 할것이 아니라 참을성 있게 들어주고 자녀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음을 인정하여야한다.

둘째, 부모는 조인자적 입장에서 대화해야 한다. 명령이 아니라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야기 하여야 한다.

셋째, 내가 하는말을 자녀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생각하고 말하여야 한다. 내가 이런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며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넷째, 애정이 담긴말을 구사 하여야 한다. 애정이 없는 말은 반항을 갖게 하지만 애정이 있는말은 자녀를 일깨워 주기 때문이다.

다섯째, 품위있는 말을 써야한다. 흔히 자녀들에게는 아무말이고 막해도 좋은 것으로 알고 욕을 섞어가며 마구하는데 이것은 옳지않다. 이상에서 일반적인 몇가지를 들어 보았지만 실제로 이와 같은 대화를 하기란 그리 쉬운일이 아니다. 바람직한 대화와 바람직하지 못한 대화의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한다.

< 예 1 >

엄마: 너 지금 몇신지 알아? 무슨 놈의 계집애가 그렇게 늦게까지 돌아치니?

딸: 미안해 엄마 친구집에 들러 놀다오느라 그랬어요.

엄마: 놀긴 네가몇학년 인데놀아 다른집 애들은 밤낮없이 공부 하느라 야단인데 허구한날 놀러만 다녀?

딸:

엄마: 에미는 먹을것못먹고 입을것못입고 너들 뒷치닥거리 하느라 죽겠는데... 애구 이놈의 팔자야

딸: 학교 았다님 되잖아요 뭘 그렇게 잘해주었다고 야단이예요..... .

< 예 2 >

엄마: 미숙이나? 오늘 너무 늦었구나?

딸: 엄마 미안해요. 야단 치실줄 알았는데.

엄마: 야단은 무슨야단, 늦을수도 있지, 그러나 전화는 해 주는게 좋지 않겠니?

딸: 잘못했어요 엄마 앞으로 꼭 전화 할게요.

엄마: 공부는 잘되니?

딸: 네 엄마 지금도 친구와 공부하고 오는길이에요. 열심히 해서 엄마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게 할게요.

대화에 정도는 없다. 그러나 부모들이 조금만 생각하고 조심하며 충분한 대화를 나눈다면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날의 함성

상창국민학교
교사 박순업



1919년 3월 26일 횡성군 천도교 교구실에서는 문창호지에 사기 대접으로 원을 그려 태극기를 만들고 있었다.

당시 횡성 만세운동의 주동자 중 한 사람인 최양옥씨는 그날의 함성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안흥면 상안리 안경춘씨를 만나 치밀한 계획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마친 최양옥씨는 원성군 소초면 둔둔리 강만항씨의 집으로 달려갔다.(당시 최양옥씨는 갑천면 화전리에서 둔둔리로 잠시 거주지를 옮겼으나 둔둔리는 횡성에 생활권이였다.) 이렇게

마을과 마을을 들며 항일 만세운동을 준비하고 있을 때 횡성군 천도교 교구실에서는 윤태환, 장도환씨 등이 모여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등사하고 있었다.

횡성의 만세운동은 고종황제의 인산과 파고다공원에서의 3.1 운동에 참가하고, 최양옥씨가 독립선언서를 가슴에 숨겨오므로서 더욱 불붙기 시작했다.(당시 최양옥씨는 중동중 1학년) 약속한 3월 27일(장날) 만세운동은 서울에서와 같이 독립선언서 낭독하는 등 형식을 갖추었으나 시위 시작과 함께 주동자들이 체포되어 대대적인 시위는 벌이지 못했다. 최양옥씨는 처남이자 주동자의 한 사람으로 도망친 안경춘씨를 안흥면 속칭 개무덤이라는 처가에서 만나 4월 1일 대대적인 만세운동을 벌일 것을 계획했다. 윤태환, 안경춘 등이 횡성군의 군중을 모으고 최양옥씨가 둔둔리 군중을 모아 낮 12시 횡성 장터에서 만세를 부르기로 한 것이다.

이날 천교도인들이 거리마다 배치되어 지난 27일의 실패를 거울로 조직적인 지하운동을 점검하였다.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받아들든 군중들이 모여들어 낮 12시 일제히 목청높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당시 원주에서 파견된 기마병 7명이 장터에 나왔을 때 군중의 수는 2천여명에달해 기마병들은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아랫장터,윗장

㉨ 郷土史 ㉨
 터에서 기마병을 피하여 만세를 외치던 군중들은 이름모를 생강장수가 기마병의 다리를 잡아 말에서 떨어뜨리자 과격해지기 시작하였다. 생강장수의 이러한 행동은 군중을 흥분시키기 충분했다. 우체국을 새로 짓기 위하여 쌓아놓은 건축자재를 들고 피압박민으로서의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장터의 일본인 상점으로 들어간 군중들은 가게의 기물을 부수며 일본사람들에 대한 울분을 풀었을뿐 누구 하나 물건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일본사람들로부터 갖은 고초를 다 겪은 군중들은 이때 손에 손에 방망이, 장작개비, 건축자재용 각목을 들고 있었다. 성난 군중들은 군청 옆 느티나무 앞에 있던 헌병분견소로 달려갔다. 기마병으로 군중을 해산시키지 못한 일본헌병들은 분견소로 들어가 총과 칼로 무장, 기습을 막고 있었다. 해가 서산에 기울며 군중이 막 헌병 분견소 30미터 전방에 밀려들었을 때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다. 물밀듯 밀려가던 군중들은 앞서가는 7,8명의 동족이 넘어지자 흩어지기 시작했다. 강달회, 하영현, 전한국, 강만항, 강사윤 씨(독립유공자 조사 당시 손자가 순국한 조부 강사윤을 증조부 강승문으로 말해 잘못 조사되었음)가 무차별 쏘아대는 일본 헌병의 총에 맞아 순국하고, 그 와중에 최양옥 씨는 느티나무 앞에 죽은척 누워있다 어둠을 틈타 도망쳤으나, 수 많은 사람이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했으며 실형을 받고 복역을 한 사람도 수십명이나 되었다.

당시 황성면 재무서기로 당직근무를 하며 목격환 박순기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4월 1일 낮 군청 및 면사무소 직원들의 비상소집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날이 어두우면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말 것과 총소리가 나도 동요하지 말라는 내용이 시달되었다. 이 사실로 보아 시위자에 대한 발포는 미리 짜여진 각본이었을 것이다.

그날 어둠이 깔리자 콩볶듯 요란한 총소리와 만세소리는 황성군청 옆 느티나무 부근의 하늘과 땅을 뒤 흔드는것 같았다. 얼마후 여기 저기에서는 신음소리가 들렸다. 면 속 직실에서는 목을 관통한 시위자가 응급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총상을 입어 몸이 피로와도 제대로 치료를 받기는 커녕 왜경의 눈에 떨까 몸을 숨겨야만 했다. 이튿날 아침 총상을 입은 5구의 시체가 방치되어 있던 면사무소 앞 마당에서는 유족들의 울부짓음속에 면장관 박순기씨가 구입해 온 광목으로 시체가 처리되었다. 시체가 놓여있던 자리 마다에는 피가 고여, 한 삼날깊이를 파도 피가 스며있었다고 박순기씨는 처참했던 당시를 회고하였다.

◎ 郷土史 ◎

법주리 강사윤씨는 장날 아침 동네사람들에게 “오늘 큰 일을 저지를 것 같다.”라고 자기의 운명을 예언했다고 한다. 그는 전날 산에 올라가 매려잡은 노루 한 마리를 쫓아 지고 장에 가서 판 다음 만세운동에 합류했다. 그때 안면이 있는 강순사가 “종씨!” 여기서 만세부르면 큰 일 납니다. 빨리 집에 가시오.” 하며 등밀이를 하는통에 향교말쭙 올라오다, 죽음이 겁나 만세부르지 못하면 어떻게 나라를 찾겠느냐며 일행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시 내려와, 앞에 서서 만세를 부르다 총에 맞았다고 법주리 유명근씨는 증언하고 있다.

만세를 부르다 왜경에 잡혀 서대문 형무소에서 태형을 당하며 모진 옥고를 치른 황성의 청년회장이었던 윤태환씨는 기미년 만세시위 전날 ‘학도야 학도야 짧은 학도야’ 노래를 부르며 시위군중들에게 나누어 줄 장작을 찢었다고 한다. 만세운동이 끝난후 옷도 벗기고 맨발로, 수갑을 찬채 서울로 압송당하던 부친의 초췌한 모습을 딸 윤신자씨는 울먹이며 목이 메어 증언하였다.

독립기념관의 전시물중 칼에 찢린 피문은 두루마기를 보지않더라도, 재현해 놓은 고문 장면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 주위에는 생생히 악몽을 몸소 겪었던 증인이 생존해있다. 황성읍내 후생약방 할머니는 17세에, 양평의 18세되는 청년에게로 출가를 하였었다고 한다. 남편이 만세운동을 전개하던 어느날, 왜경이 들이닥쳐 남편의 가슴을 사정없이 총검으로 찢렸고 남편이 앞장서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는 죄 아닌 죄로 시어머니와 임신 8개월인 본인은 동네어귀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기절하였다. 얼마인가 시간이 지난후 의식을 회복해 보니 안방이었으며 남편을 잃은 자기는 후유증으로 1개월간 태를 못났고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 그후 시대 어른의 간곡한 권유로 현재의 곳으로 재가하였다 하며, 몸서리쳐지는 일제 만행의 체험담을 많은 세월이 흘러간 지금 눈물로 증언해 주셨다.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기까지는 이렇듯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한편 최양옥씨는 일시 몸을 피하고 처남의 체포소식을 알리러 상안리 처가로 숨어들었다. 하지만 3일만에 잠복하고 있던 왜경 2명에게 검거되어 황성으로 압송되어 오던 중 추동리 삼거리 주점에서 왜경들이 잠시 쉬며 잡담을 나누는 사이 수갑을 찬 채 용돈리 쪽 산으로 있는 힘을 다해 뛰었다. 왜경 2명은 뒤쫓아 오며 멈추라고 소리 소리쳤

최양옥씨는 후일 감옥에서 딸의 부음을 듣고 피눈물을 흘렸다 한다.

한편 무사히 서울에 잠입하여 활동을 개시한 최양옥씨는 만국박람회장의 삼엄한 경계로 폭파계획을 포기하고, 수 차례 경찰서를 습격 일제에 피해를 주던 중, 춘천으로 일본 중요 우편물차가 간다는 정보가 날아왔다. 최양옥씨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 김정연 이선구와 함께 1929년 4월 20일 경춘간 망우리고개에서 각각 권총으로 무장 16만원이 들어있는 일제의 우편물차를 습격 비밀장치된 우편물을 찾아내어 왜적의 것은 전부 불태웠다. 이 때 운전수도 치치하고자 대원 한 사람이 권총을 겨누었다.

최양옥씨는 비록 일본 우편물차를 운전하였지만 죄없는 동포를 왜 죽이느냐고 살려 보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살아 돌아간 그는 신고를 하였고 경기, 황해, 강원, 충북, 충남 5도의 왜경이 총 동원되어 양주군 천마산을 포위하였다. 이리하여 천마산을 전장으로 시작하여 망우리고개와 마차고개를 넘나들면서 이를 낮, 밤을 고전한 끝에 탄환이 떨어지고 허기가 심하여 할 수 없이 체포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모진 고문을 받으며 서대문 형무소에서 11년간의 옥살이를 또 해야만 했다. 옆 감방의 이선구 대원은 일제가 주는 식사를 거부 옥사를 하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최양옥씨의 활동내용은 독립기념관 제 5관에 일부 전시되어 있다.

최양옥씨는 정부로부터 1962년 도내에서는 가장 훈격이 높은 건국공로훈장을 받았으며 갑천면 전촌리에서 선산을 돌보며 외롭게 노후를 보내다 세상을 떴다.

황성의 3.1 운동은 천도교, 기독교, 유생등 황성지방의 이름없는 청년들에 의하여 주도되었으며 많은 군민들의 호응을 얻어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대규모로 전개된 만세운동이었다. 뒤를 이어 서원면 매호리 만세운동이 일어났으며 원후정(청일면 춘당교 교장, 정년퇴직), 심재영씨(황성, 조곡리, 동신운수 회장)는 춘중 1학년 재학 중 독서운동을 통한 항일운동을 전개하다 각각 5년 14개월, 3년 8개월 동안 서대문 금천형무소에서 어린 몸으로 갖은 악형을 당하였다. 수많은 향토의 선열들은 이렇게 잔악한 일제의 만행속에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며 오직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였다. 그래서 황성군을 오늘날 애국의 고장이라 부르는 것이 아닐까?

황성 장터와 군청 느티나무 부근을 중심으로 했던 황성군민의 만세시위운동은 세월의 흐름속에 잊혀져 가고 있는것 같다. 총소리와 만세소리가 범벅이 되었던 그날의 함성은 역사속으로, 허공속으로 가물가물 인떨되어 가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그날의 함

성은 황성군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되고 역사의 교훈으로 되새겨져야 할 것이다.

주) 위 글은 필자가 1982년 방학중 황성 3.1운동의 체험자, 목격자를 탐방 증언내용을 소개한 글이다.

<황성군 3.1운동에 대하여 증언해 주신 분>

	생년월일	주 소	증 언 내 용
박순기 (작고)	1893. 9. 13	황성읍 반곡리	황성 3.1운동 당시 황성면 제무서기로 당시 상황을 상세히 목격함.
최양옥 (작고)	1893. 12. 5	갑천 전촌리 2반	황성 3.1운동 주동자중 한 사람이며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였음. 독립운동단체인 공명단 단장으로 활동. 군자금 모금과 경춘간 망우리고개에서 일본 우편물차습격으로 17년간 옥살이를 하였음.
윤신자	1923. 8. 27	부산 범천 1동 20통 3반 844	윤태환씨의 딸로 황성청년회장이었던 부친의 만세운동 증언
한명수	1911. 1. 11	황성읍 읍상 4리	여덟살의 어린눈에 비추었던 황성 3.1운동 증언. 조부로 부터 들은 황성 3.1운동의 활동내용 증언
한명수 작고	1903. 4. 5	황성읍 읍하리	황성의 3.1운동 증언
유영근	1897. 7. 9	우천 법주리 모시골	만세시위중 순국한 이웃의 친구였던 강사 윤씨에 대하여 증언
박가희	1900. 3. 22	황성읍 읍상리 (후 생 약 방)	남편은 만세시위로 왜경의 왜경의 칼에 피살되고 17세에 만삭이 된 몸으로 시모와 함께 나무에 거꾸로 매달렸던 수난 증언
원후정	1921. 8. 16	침일면 춘당	독서회를 조직 춘당에서 항일운동 전개
심재영	1923. 1. 3	황성읍 조곡리	//

※ 필자약력 (박순업)

- 출생지 및 주소 황성읍 조곡리 277
- 황성중고등학교 및 춘천교육대학 졸업
- 덕고, 우천, 황성국민학교 근무
- 1981년 전국학습자료공모전 출품 우량상 수상 (강원도 3.1운동 유적지)
- 1982년 전국교원현장교육연구대회 1등급 입상 푸른기장 수상 (황성군 항일운동 연구)
- 1984년 새마을 해외 연수
- 1987년 군 향토문화상 수상
- 현 상창국민학교 근무



독립운동 당시 20대의 젊은 최양옥씨



일제에 항거했던 지난날을 회고하는 최양옥(당시 89세) 필자는 82년 여름방학 1주일간을 탐방 증언을 들었다.



선산을 돌보기 위해 묘소로 찾아가는 최양옥씨



집으로 돌아가는 최양옥씨 (89 세, '82 년 여름)



갑천면 전촌리, 노후의 생활을 하던 최양옥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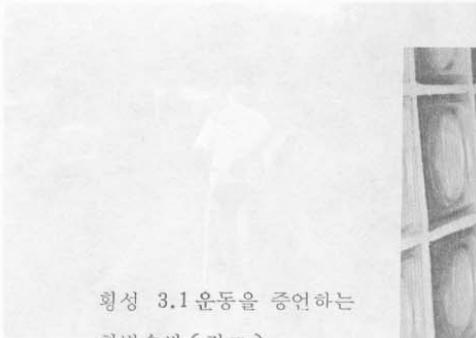
선산을 돌보던 최양옥씨 (부인과 세 아들)



3.1 운동 당시 횡성 청년회장으로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윤태환씨의 딸 윤신자씨는 부친의 활동내역을 증언했다. ('82 년 여름)



남편은 왜경의 칼에 찔려 숨지고 남편이 만세운동에 앞장섰다는 죄로 만삭이 된 몸으로 시모와 함께 나무에 거꾸로 매달렸었다는 후생약방 할머니 박가희씨



횡성 3.1운동을 증언하는
한명수씨 (작고)



8세의 어린눈에 비쳤던 횡성 만세운동을 증언
하는 한명수씨. 조부에게서 들은 횡성 3.1 운동
증언



우천면 법주리 모시골 유영근씨 (1987.7.9 일생)
는 횡성 3.1 운동 당시 순국한 이웃의 동년배
였던 강사윤씨의 만세운동을 증언하고 있다.



횡성면 반곡리 박순기씨 (1893.9.13)
는 횡성 3.1 운동 당시 횡성면 재무
서기로 당시상황을 상세히 목격 그
내용을 증언하고 있다.

의병장 최 인 순

(1864. 11. 25 ~ 1907. 10. 23)

상 장 국 민 학 교
교 사 박 순 업

땅거미가 깔리는 우천면 범주리 논둑길에 풀짐을 잔뜩 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다. 풀짐 위에는 샷갓을 얹어놓아 더욱 높아 보였으며 그 뒤에는 서당 공부를 마치고 뒤를 따라가는 소년이 있었다.

소년은 어느 지점에서 몸을 숙구쳐 가볍게 풀짐을 타넘어 앞을 걸어 가고 있었다. 바로 그는 최인순 소년 이었다. 이렇게 소년 시절 부터 뚝이날래고 지혜로워 훌륭한 장군으로 대성할 인물로 가문과 마을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다.

한편 1890년대 우리나라의 안팎은 매우 어수선 하였고 서양 문명을 먼저 받아들인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갖은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많은 선열들이 그러했듯이 범주리 산골의 최인순 선생도 분함을 참지 못하고 나라를 구하려는 마음에서 목숨을 바쳐 싸울것을 굳게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1894년 갑오경장부터 청일전쟁에 이르기까지 강원도 영서 지방은 물론 경기도 의정부 및 충청 경상도에서 일본 침략자에 대한 의병 활동을 하였다.

그후 그는 조직적이고 더욱 강력한 대항을 위하여 원주 이삼령 대대 지휘하의 군인으로 들어갔다.

지와 용을 고루 갖춘 그는 곧 소모(군대모집)대장이 되었다. 마침내 일본은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기 위하여 우리나라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키기로 하고 원주 에도 무장해제를 위하여 일본군이 침입한다는 연락이 오게 되었다.

이에 미리 겁을 먹은 이삼령 대대장은 팔백여명의 군대를 모두 해산시키고 사용하던 무기는 전부 무기 창고에 가두고 도피하고 말았다.

최 소모 대장은 그를 찾아가 울부 짖으며 나라가 불길하니 도피하느냐 호통을쳤다.

이로부터 800 여명의 군사를 수습 무기고를 부수고 무기를 꺼내 일본군과 대항 하는 한편 원주 학곡리에서 의병을 더 모집 강화 하였다.

그후 1907년 7월 원주에서 전투를 하던중 원주 군수가 찾아와 여기서 격전을 하면 원주는 쑥밭이 된다고 애원 하는 통에 큰 싸움은 하지 못하고 민공호(민특무-지금의 준위), 한갑복 의병장과 함께 수천명 의병을 인솔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에 진을 치게 되었다.

우항리에는 최인순 의병장의 심복인 이흥선씨의 집이 있었으므로 의병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 그는 의병들에게 아침 저녁 식사를 제공하였으며 각반을 하나씩 주선했다고 한다. 그는 후일 최의병장은 다른 의병장들 보다 항상 선봉에서 싸웠다고 증언 하였다.

최의병장은 우항을 떠나 안흥, 강림, 평창, 대화, 운주등에서 왜군과 격전 하였으며 민특무공은 애석하게도 강림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그러나 최인순 한갑복 휘하 의병들은 계속 강릉으로 행군 도중에 진부에서 격전외적을 무찔렀으나 참으로 애통한 일이다. 강릉못 미쳐 배다리에 진을치고 있던 중 왜적의 야습을 받아 1907년 10월 23일 43세를 일기로 최인순 의병장은 뜻을 다 이루지 못한채 전사 하고 말았다.

최인순 의병장은 서기 1894년 부터 서기 1907년에 이르기 까지 13년간 일본 침략을 불리치기 위해 불리한 재래식 무기로 왜적에 대항 솔한 숨은 전공을 남겼다.

그러나 가문의 세도 사회적 배경도 없이 평범한 백성으로서 오직 일본군과의 항쟁에만 몰두 하였으며 당시의 급박한 상황으로는 후세에 기록을 남길수 없었으리라. 그리하여 큰 공적이 밝혀지지 않는일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최인순 의병장의 시신은 일본군에 의해 동해 바닷물에 쳐 박혀져 묘소 하나 후세에 남아 있지않고 목격자들의 구전에 의하여 그의 행적이 전해지고 있다.

그간의 최의병장 가정은 파산 되다시피 하고 의병장의 부인은 특하면 대추나무 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곤욕을 치르곤 하였다 한다.

그리하여 이사도 몇번씩 하면서 잠도 피신하여 자야만하는 핍박이 따랐다고 한다. 아들 또한 왜적의 박해와 아버지의 죽음에 따른 상심으로 머리도 산발하고 두문불

출하다가 세상을 떴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병장의 손자 최봉수(1911.6.26생) 씨도 글자 하나 배우지 못한 문맹자로 지금도 제천 등지를 다니며 76세에 고령임에도 석공일로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으나 결코 긍지를 잃지않고 있다.

그는 할아버지의 수업을 닮아 수업도 짚지 않는다고 한다.

최인순 의병장은 주위 사람들의 증언으로 1977년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건국 포장을 받았다.

횡성군의 의병장 중에는 우천면 문암리의 한상렬 의병장을 빼놓을수 없다.

그는 모든것을 바쳐 평생을 일본에 항쟁하였으며 같은 무렵에 최의병장 휘하에서 또는 독자적으로 의병을 모집 의병장이 되어 왜적에 대항하여 싸웠다.

그후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에 가담 활약을 하였다. 횡성 감부로 그가 살던 우천면 문암리 풀말 집은 당시 왜군에 의하여 불살려지고 농경지로 변해 버린 지금은 기왓조각만 뒹굴고 있다. 가정도 풍지 박산, 양자로 대를 이어가고 있다.

그 당시 일본 침략자에 협조를하면 호의 호식하고 가정의 번영과 평화가 약속되고 최소한 이들이 하는 일에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가정에 풍파가 없다는 것을 의병장은 누구 보다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횡성의 위대한 의병장은 결코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

이기주위와 기회주의가 팽배한 오늘을 사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또한 나라를 구하기 위한 일념으로 살아간 우리고장 선열들의 가치관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숨은 호국 향토 사료를 발굴 후세에 전 할의무가 이 고장에 사는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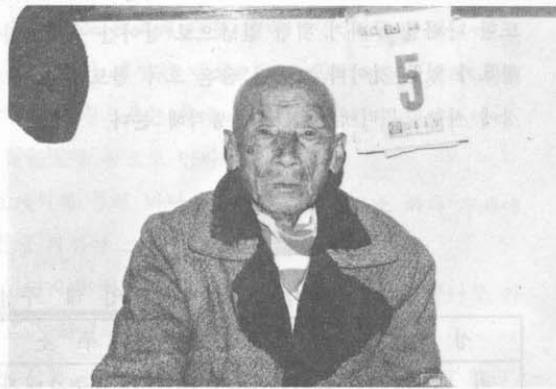
증언 해 주신 분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관계
최봉수	1911.6.26. (76세)	원주시 태장2동	최 의병장 손자
유영근	1897.7.9. (91세)	횡성 우천 법주23	최 의병장과 동향, 목격자 한상렬 의병장의 처조카



최인순 의병장이 살던 법주리 현
방앗간 옆 집터. 지금은 집이 뜰
기였다.
사진은 최인순 의병장의 손자
최봉수씨.

당시 10살 안팎의 어린 몸이었으나 최인순 의병장과 이웃하여 살았으며 최의병장 활동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는 당시의 목격자 유명근씨 한상일 의병장의 처조카이기도 하다.
황성 3.1운동 당시 순국자 강사윤씨와 법주리에 이웃하여 살았으며 친구사이였다.
(91 세, 법주리거주)



이름	성명	생년월일	사망연월일
유명근	유명근	1911.11.15	1991.11.15
한상일	한상일	1911.11.15	1991.11.15
강사윤	강사윤	1911.11.15	1991.11.15

講林太宗臺와 元天錫의 古事

曹 尙 鉉

橫城郡 安興面 講林 2 里.

서울에서 橫城, 大和, 珍富를 거쳐 江陵을 잇는 42 番 國道邊 安興에서 溪谷을 따라 25 리쯤 오르면 지난날 寧越 땅이었던 雉岳山 동쪽자락 講林에 太宗臺란 조그만 비석이 있고 그 안에 駐蹕臺라고 새겨진 비석 하나가 있다.

이 곳이 바로 高麗王朝의 復古를 위해 반기를 들고 일어났던 杜門洞 72 인의 한 사람이며 李陽昭 南乙珍 徐甄과 더불어 高麗 四處士로 유명했던 原州 元씨의 증시조 耘谷 元天錫이 세상을 등지고 落鄉하여 있을 때 朝鮮王朝 셋째 임금인 太宗이 親히 옛 스승인 그를 찾아 이 곳까지 왔다 되돌아 간 곳으로 太宗臺는 그때 太宗이 잠시 머물렀던 곳이라 하여 훗날 이를 記念하기 위해 세운 遺跡이다.

그래서 이 太宗臺를 중심으로 講林地域에는 그 옛날 임금이 험한 산길을 무릅쓰고 옛 스승을 찾아 행차했을 때에 있었던 古事와 이때에 이들의 발길이 닿았던 곳곳에 생긴 地名들이 오늘에 전해져 오고 있으니 …….

高麗末期에 이르러 李成桂의 위화도 회군을 기점으로 高麗王朝에는 風雲이 일기 시작하였다. 우왕과 창왕이 폐위되어 살해되고 최영도 피살되고 말았다.

마침내 475 年間의 고려사직이 무너지고 조선왕조가 建國되자 두 王朝의 興亡의 와중에서 麗末의 遺臣들과 그들을 회유하려는 開國公臣들 간의 싸움으로 급기야 高麗王朝를 끝까지 지키려던 圃隱 정몽주는 죽음을 당 했고 牧隱 이색은 유배되고 治隱 길재는 세상을 避해 숨어 버리는 일대 비극이 벌어졌다.

한편 이같이 王朝가 바뀌면서 죽고 죽이는 참살이 계속되는 가운데 王位繼承을 놓고 芳遠이 벌인 피비린내 나는 骨肉相爭은 初期 朝鮮王朝를 일대 혼란과 살생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 넣고 있을 때 고려에서 한낱 進士의 벼슬밖에 하지 못했지만 太宗의 少年時

節(芳遠) 그에게 글을 가르쳤던 만큼.

文章과 學問이 뛰어났던 元天錫은 이같은 어지러운 政治싸움을 피해 鄉里인 雉岳山 기슭에 몸을 감춘 채 農事를 지으며 부모님을 奉養하고 있었다.

당시 元天錫과 같은 수 많은 高麗의 遺臣들이 산속으로 들어가 자취를 감추어 버렸으니(燃黎室記述 高麗時節臣附) 이들 중에는 첩첩산중인 江原道 旌善땅에 숨어 들어 온 사람들도 많았는데, 山水를 벗 삼아 한 맺힌 세월을 보내면서 이들이 읊조린 것이 바로 오늘에 傳해 지고 있는 <旌善아라리>의 가락이기도 하다.

어쨌거나 歷史의 수레바퀴는 쉬지않고 돌아 마침내 高麗의 榮光은 그 막을 내렸고 조선왕조는 새로운 秩序와 평온을 回復하여 代를 이어 가고 있었다.

마침내 李太祖의 다섯째 아들인 芳遠은 형제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王權을 장악, 太宗에 즉위하였다.

임금의 자리에 오른 太宗에겐 훌륭한 인재가 절실히 必要했다. 그것은 새 王朝가 탄생할 때, 參與派와 저항파 사이에 벌어졌던 싸움에서 많은 인물들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太宗은 옛 스승인 元天錫을 찾았다. 그의 높은 德望과 깊은 學識을 익히 알고 있는지라.

太宗은 그에게 벼슬을 주어 함께 政事를 論하려 함이었다. 온갖 수소문 끝에 元天錫이 雉岳山 속에 은거하고 있음을 알아 낸 太宗은 여러차례 사람을 보내 불렀지만 그 때마다 元天錫은 벼슬길에 나갈 것을 극구 辭讓했다.

이에 太宗은 생각다 못해 直接 元天錫을 찾아 나섰다. 서울을 떠난 太宗의 행차는 단새를 걸러 지금의 寧越 酒泉을 지나 安興땅에 접어들고 있었다.

이 즈음 太宗이 자기를 찾아 東遊길에 올랐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元天錫은 그의 집 할미종을 불러 지금의 講林 2리 앞 세거리가 있는 냇가에 나가 빨래를 하고 앉아 있도록 일렀다.

「빨래를 하고 있으면 높은 어른의 행차가 그곳에 와서 나의 행방을 물을 것이니 내가 지금 가는 저 반대쪽 길로 가면 된다고 對答하라」

이르고 忽然히 雉岳 溪谷을 向해 사라졌다.

원천석은 아예 太宗의 행차를 따돌려 버리려는 心算에서였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후에 높은 분의 요란스러운 행차가 들이 닳쳤고, 이내 원천석의

집을 들러 나오더니 계곡위에 있는 널따란 바위 위에 행장을 푸는 것이었다. (太宗)은 할미종에겐 참으로 생전 처음 보는 호화스러운 행차였다.

그러더니 군졸 한 사람이 다가와 원천석의 행방을 묻기에 할미종은 우인이 시킨대로 거짓말을 하였다.

太宗의 행차는 다시 할미종이 일러준 길을 따라 뒤쫓아 갔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되돌아 나왔다.

그리고 계속해서 산길을 찾아 헤맨太宗은 지친 몸을 이끌고 실망을 안은채 되돌아 갔고,太宗이 돌아간 후에야 비로소 자기가 거짓을 아뢰는 분이太宗이었음을 안 할미종은 지엄한 임금을 속인것이 백성의 도리에 벗어난 일이라 뉘우치고 빨래터 아래 굽이쳐 감도는 깊은 물속에 스스로 몸을 던져 목숨을 끊고 말았다.

이와 같이太宗이 원천석을 찾아왔다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이 산간벽촌 講林 땅에는 그후 이 일로 인하여 수 많은 所地名이 생겼다.

太宗의 행차가 잠시 머물러 쉬었다.

돌아간 곳을 처음에는 비석을 세워 駐蹕臺라 불러 오다가 훗날 여기에 碑閣을 세워太宗臺란 현판을 걸게 되니 이 때부터 이곳을 <太宗臺>라 고쳐 부르게 되었고, 할미종이 빠져 죽은 웅덩이를 <老姑沼>, 그리고 그후 이 近處에 생긴 마을 이름을 <老姑村>이라 일컫게 되었다.

또 安興面 釜谷 1里 가래골에 있는 <橫指岩>은 芳遠이 포악무도하게 政權을 脫取하여 王位에 오른것은 모두가 어렸을 때의 그를 자신이 잘못 가르친 탓이라 뉘우치고 즉 그를 빗가르친 때문이라 한탄하면서 원천석이 앉아 눈물지은 바위라 하여 생긴 이름이며 <老姑沼> 앞산을 <拜向山>이라 부르게 된 것을 원천석을 만나지 못하고 낙심천만하여 한양으로 되돌아 가던太宗이 비록 스승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원천석이 거쳐 했던 쪽을 向해 큰 절을 올리고 갔다 해서 생긴 이름이다.

또한 원성군 소초면 학곡리에서 講林쪽으로 넘어오는 고개를 <수레재> 또는 <수레너머 고개>라고 하는데 이 고개이름은太宗의 수레가 험한 산길을 어렵게 넘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安興 釜谷에서 雉岳山에 오르는 등산로 길가 언덕에 마치 추녀끝처럼 하늘을 가리고 튀어나온 바위를 <삿갓바위>라 부르는데 그 이름이 생

긴 것은 원천석이 雉岳山 나들이를 할 때 소낙비를 피했었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이외에도 太宗이 몸소 걸어서 넘었다는 <大王재>, 그리고 太宗이 스승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원통해 울고 넘었다는 <원통재>란 이름도 모두 이 때에 생긴 것이다.

이처럼 임금이 옛 스승을 찾아 雉岳山 기슭에서 숭배꼭질을 하며 수 많은 傳說을 남기고 간지도 벌써 6백여년전의 옛 일.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아 온 元天錫은 그의 여든살이 되던 해 임종을 앞둔 어느날, 자息들을 한 자리에 불러 놓고 나무상자 한 개를 내 놓았다.

그리고는

「내가 죽은 뒤에라도 이 책은 절대로 열어서는 안되느니라」

이 한 마디의 遺言을 남기고 그는 한 많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의 子孫들은 그의 遺言을 받들어 여러 代를 내려 오면서 소중하게 간직하여 오던 중, 증손대에 이르러 궁금하게 여긴 後孫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무상자를 開封하고 말았다.

그가 죽은지 2백여년만의 일이다. 상자의 뚜껑을 열고 보니 그 속에서는 高麗末期의 일들을 소상하게 記錄한 史書 6권이 나왔다. 참으로 貴重한 資料들이었다.

그러나 冊을 꺼내 펼쳐 든 원천석의 後孫들은 이내 책장을 덮어 버리고 말았다.

그 內容은 조선王朝가 고의적으로 曲筆한 麗末의 事件들이 直筆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建國 當時에 저질렀던 朝鮮王朝의 엄청난 비리가 숨김없이 그대로 적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놀란 그의 後孫들은 이 책의 內容이 세상에 알려질 때 滅門의 禍를 당할까 두려워 그 자리에서 불태워 버렸다는 기록이 逐腫篇과 海東樂府에 있다.

元天錫이 高麗 忠肅王 17年(1330) 7月8일에 났으니 高麗가 망할 때 그의 나이 60歲, 또 朝鮮王朝에서 30年을 살다 갔으니 그가 雉岳山 속에서 20餘年間に 걸쳐 쓴 史의 內容이 當代의 史實을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했을 것인가는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다.

◎ 郷土史 ◎

임금이 親히 벼슬을 주겠다고 해도 이를 끝내 辭讓하고 대쪽같이 살다가 節士 元天錫. 평소 옹고 그름을 가려 탐관오리들을 증오하며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고 근심하다 高麗遺臣 元天錫. 목숨이 다 할때까지 이미 亡한 高麗의 역사나마 옹게 밝혀 놓으려 애쓰다 가버린 마지막 高麗人 元天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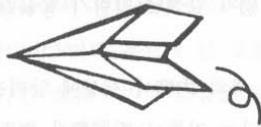
興亡이 流水하니 滿月臺도 秋草로다.

5百年 王業이 牧笛에 부쳤으니

夕陽에 지나는 客이 눈물겨워 하노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愛誦하고 있는 그의 懷古歌는 出世와 治富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날뛰는 요즘 같은 世態에 그는 분명 우리에게 큰 教訓을 주고 갔다.

앞으로 이곳 講林地域을 遺跡地로 規模있게 손질하고 가꾼다면 橫城의 유일한 觀光名所로 크게 각광을 받을 것이다. (在春川橫城郡民會長 江原道廳橫城花城會長)



의병총 앞에서

— 을미이후 국민의 고통이 하늘에 닿았으니 —

서원국민학교장
최 성 칩

강림을 찾는 이는 산 중턱에 우뚝 솟아 있는 무명의 의병총(義兵塚)을 발견하게 된다.

춘풍추우 오랜세월(78년) 고개마루터 양지 바른곳. 월현 황야에 묻혀있는 것을 1985년 3월 5일 이곳에 안장시켜 놓은 것이다.

그럼, 의병(義兵)이란 무엇인가? 즉 의병이란 나라가 위태로울 때 정부의 명령이나 소집을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일어나 싸우던 민병이다. 우리나라는 유사이래 외국의 침략을 많이 받아 그때마다 의병이 일어났으나 임진왜란 때와 1895년(고종 32) 이후 한일합방 전후에 이르는 시기에 가장 현저한 활동을 하였다.

임진왜란때의 의병은 고사하고 구한말 의병운동을 대개 3기로 나누어 고찰하겠다. 구한국말의 의병은 보수적인 사상가들에 의한 주자학적(朱子學的)인 이단배척(異端排斥)의 이념에서 비롯 되었다.

제 1기— 19세기 중엽 이항로(李恒老)와 그의 문하생들의 양왜배척(洋倭排斥)의 정신에서 유래되며 1895년(고종 32년) 민비(閔妃)의 살해와 단발령(斷髮令)의 실시로 인한 민중의 격분을 대표하는 의병의 출현이었고.

제 2기— 1905년(광무 9년) 을사보호 조약이 체결된 후에 일어난 의병운동이요,

제 3기— 1907년(융희 1년) 고종황제의 양위(讓位)와 군대해산등에 자극되어 일어난 의병활동으로 어느 정도의 조직과 무기를 갖추고 대규모적인 항전을 계속하였다. 여기 잠들은 의병은 제 3기에 해당하는 1907년 군대해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구한말 의병장으로 이름을 떨쳤던 민금호(閔肯鎬)휘아에서 싸우다 죽음을 당한 것이다.

원주 진위대장 민공호는 1907년 8월부터 1908년 2월까지 한국군 해산을 반대하면서 의병을 일으켜 강원(江原), 충청(忠淸), 경북북부, 경기(京畿) 일원에서 1백여회나 일본군을 물리치고 승전한 의병장(1962.3.1 전국공로훈장추서) 1905년 11월 일제는 이른바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국권의 일부를 박탈한 다음 1907년 7월 31일 한국군을 해산키로 하는 소칙(詔勅)을 만들어 8월 1일 한국군을 해산 시키기에 이르렀다.

이에 한국인들은 전국적으로 의병운동을 일으켰고 민공호(閔肯鎬) 역시 군대해산 명령에 불복(不服) 의병(義兵)을 일으켜 일군에 항전(抗戰)하였다.

그의 의병장(義兵長) 복서(覆書)는 다음과 같다.

“진 특무장교 민공호 피눈물로 통곡하며 삼가 엎드려 회신을 보냅니다. 강원도 관찰사각하 - 을미(乙未) 이후로 국민의 고통이 하늘에 닿았으며 이제 또 삼천리 강토와 인민이 하루 아침에 일본의 손에 들어가니 그 악독에 분통하여 살아서 일월(日月)을 대할수가 없다. 저들의 흉악스런 작태를 말로써 표현한다면 사람이나 가옥, 소, 말과 같은 가축 심지어 산천초목에 이르기까지 세금을 부과하고 국고(國庫)마저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으니 이 어찌 조종을 지켜온 옛법도 이겠는가.

의병과 일본군이 서로 전투를 벌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가 아무죄가 없는 여러(閭里)와 읍촌(邑村)을 불태우고 살육하는 것은 어떤 마음보에서 나온 것인가.” 등의 이유를 들어 의병을 해산할 수 없다고 밝히고 민공호(閔肯鎬)부대는 선유사와(宣諭使) 강원 감찰사의 순종(純宗)소칙(詔勅)을 내세운 선유를 물리치고 계속 의병활동을 전개하여 장호원 동남방 십리되는 마을에서 일본군을 섬멸하는 등 대단한 전과를 올렸었다.

민공호는 결국 1908년 2월 29일 원주의 치악산 아래 강림 동쪽 십리되는 동자(현 월현고개)고개에서 일본 토벌대와 조우(遭遇)하여 격전을 벌였으나 체포되어 죽음을 당했다.그당시 같이 참전했던 의병들도 일전을 벌이고 죽음을 당하였으니 애석타 그 한을 우리 세대가 풀어 주어야 하겠다. 그리하여 한말의 의병활동은 그 정신에 있어서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하는 저항 정신의 기본이 되었으며 민족의 경기를 높이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근대사상 사상(近代思想史上) 높이 평가되는 사실이다.

橫城의 姓氏

편집실

횡성 고개의 본토지인은 횡성조씨와 횡성고씨가 있고, 횡성지역에서 세거한 성씨는 무려 28성이나 된다. 그러나 본사료집에서는 횡성의 뿌리가 되는 성씨만을 소개하기로 하고 세거성씨는 그 연고지만을 기술하기로 한다.

1. 횡성에 본관을 둔 성씨

가. 횡성조씨

횡성조씨는 그 시조를 위는 옥자이며 문하시중을 지내고 횡성군에 봉해질조익이며 그의 문중에서 조영인, 조충, 조계순등의 명인들을 탄생시켰으며 횡성군 공근면 상동리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횡성을 정암리 망백마을에 6.25년란전까지 세거해 살던 문중이 50여 세대가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외지에 나가 살고 현재는 30여 세대가 살고 있으며 증손은 조원근씨이다.

※횡성조씨 문중의 인물

1 조영인

횡성조씨 칠세손인 조영인은 문정공 조

충의 아버지로서 익호는 문경공으로 고려 의종때 문과에 급제하여 전주사록을 거쳐 명종이 즉위하자 태자의 보도를 맡았으며 명종 4년인 1174년에 좌사원외랑으로 정조사가 되어 금나라에 다녀왔으며 명종 27년인 1191년에 참지정사정당 문학한림학사 승지에 올랐고, 그후 수태위상계국판공(상장군)에 이르렀는데 임금올도와 국사를 돌보니 세상여론이 그를 존경하였으며 그는 신종이 즉위하여 많은 공을 세움으로써 그의 인품을 높이 사 다시 김자록대부 개부의동삼사 문하시랑평장사에 이르렀고 신종 4년인 1201년에 노쇠하자 눈이 어두워 정사를 돌볼 수 없다는 이유로 관직을 물러나 권력이나 관직을 탐하지 않는 고결함을 엿볼 수 있다. 그가 관직에서 물러나자 그의 벼슬에 문하시중을 더하고 퇴임케 하고 낙향 5년만에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니 시호를 문경공이라 내리고 신종조정에 배향되었다.

그가 태어난 해는 인종 12년인 1134년이고 신종 6년인 1203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아들 충은 손자 계순과 함께 삼원수로 세덕사에 배향되었다.

2. 조충

조충은 부친 영인과 아들 계순과 더불어 횡성조씨 문중은 물론 강원도에서 빼어난 인물로 손 꼽힌다.

고려조를 통해서 문신으로 빼어났고 무신으로 유명했던 그들은 3대 원수를 지냈다가 하여 삼원수라 부르며 공근면 상동리에 후손들이 사당을 지어 부르며 매년 봄, 가을에 제향을 올려왔으므로 이곳 지명은 삼원수골이라 부른다.

충은 조영인의 아들로 고려사 열전 제 16 권에 보면 충의 자는 심약이며 생후 1개월만에 어머니를 여의었으며 어릴 때부터 효성이 지극하였으므로 효동이라 불리웠다고 한다. 또한 횡성조씨 족보에 의하면 그는 상동리 자지봉 아래 있는 굴바위(석굴)에서 태어났으며, 그 까닭에 이곳에서 3백미터 아래쪽에 있었다는 선강정에서 아들 부자가 시를 읊었다고 적고 있다.

조충은 고려때 거란족을 막은 대장군으로 유명한 인물인데 시호가 문정공으로 아버지 문경공, 아들 광정공으로 그들의 생애가 모두 문신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려사 열전의 조충에 대한 서

술은 모두 전선에서 쌓은 공적에 관한 것이다. 최씨 무단정치가 시작되던 최충헌의 집권 당시였으니 문신으로서 활동은 활발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비록 활발하였다 해도 감추어 질 것은 뻔한 일이다.

또한 정중부의 난 이후 최충헌의 집권까지 무신의 분쟁이 계속되어 마치 김부겸이 상장군이 되어 묘청의 난을 평정하고 공훈을 차지하던 그와 같은 문신의 횡포는 지양되었을 때이고 보면 충은 명실상부한 상장군이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시 횡성조씨 세보에서 보면 그가 등용된 과정을 살펴보면 음보로 벼슬에 올라 등용된 후 명종 때인 1190년에 급제하고 희종 7년인 1211년 국자대사성 보문각 태학사 겸 한림학사에 올랐는데 그의 수중에 전책이 많았다고 적고 있다.

그는 이 때부터 학자로서 정통적인 출세의 길에 접어든 셈이며 그가 동북면 병마사로 지낸 것은 무신의 자리를 맡은 것인데 동북면 병마사는 동계의 군정 책임자로서 지금의 성남, 강원의 동해안의 행정을 주관하는 동시에 동북방면에 국방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였다.

그 후 그는 예부상서를 맡아 문신으로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했다. 이와같이 문무의 자리를 옮겨가며 그 재질을 발

휘하다가 고종 3년인 1216년에 구밀원 부사한림학사승지로서 상장군을 겸임하였다.

고려사열전에서도 좋은 재질이 문무를 겸비하여 특별히 두 관직을 주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혹자는 그의 이 같은 입신을 최씨 정권의 혼잡한 정계를 틈타서 비정상적인 출세가 도를 달린 인물이라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최충현 집권의 초기는 정중부, 경대승 등의 해서 문란해진정가를 바로잡는데노력 하여 어느 정도 성공을 보고 있는 때이고 최충현형제의 싸움을 기점으로 난폭해졌던 때는 충이 그의 정도를 지켜 최씨 무리에 가담하지 않았던 때이다. 그가 거란족과의 싸움이 끝난 뒤 평양(서경)에서 버리면서 최충현과 한 때 맞섰던 것은 곧것을 입증하고 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조충에 대해 공훈을 주는 정도가 소홀하여 맞서게 되었다고 고려사, 고려사절요, 동국전란사에 특기 되어 있다. 이것은 곧 그가 세도가나 불량배와 결탁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며 그의 꿈은 절개와 충성심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역사에서 이러한 사람을 발견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웬만하면 세도가에 의탁하여

자기의 철학과 인간의 지성을 짓밟는 것을 허다하게 볼 수 있다. 권위로 군림한 자리에는 예사복종의 논리만을 자기의 것으로 알았고 그것을 미학의 세계로 발전시켰던 일반적인 경향이었고 지금도 이러한 풍토는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런것을 생각하면 조충의 고고했던 성품과 행동은 무신 집권기의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의 지성적 레지스탕스 풍토를 유지하는데 자못 유익한 것이다. 그가 그러한 성품과 행동으로 일관할 수 있었던 것은 길들여진 것이라고 식자들은 평하고 있다.

그가 이룩한 가장 큰 업적은 거란족의 침입을 막아 국사상에 그 공훈이 빛나고 있는데 그 전란사를 통하여 그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면, 고려는 북진정책을 세워 고구려 옛 땅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고려의 북진정책은 거란, 여진, 몽고의 침입때문에 좌절되었는데 중국에서 몽고족이 일어나 북중국을 지배할 때 만주에서 살고 있던 거란족이 몽고에 밀려 고려를 침범하였다. 이것은 거란유족의 침입이라고 하는데 유족의 침입이라고 하는 것은 거란족이 고려를 침입한 적이 있어서 그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거란유족의 침입이라 한다. 그들이 고려를 침입한 때는 고종 당시의 일인데

특징적인 것은 정규 군대의 침입이 아니라 가족을 동반한 침입군이어서 엄격하게 말하면 거란족 이동의 성격을 띤 것이 짙었던 것이다. 그들은 갖은 약탈의 방법을 다하여 우리의 강토를 짓밟았다. 그들의 처지로 보면 갈 곳이 없는 형편이니 고려에 살 곳을 만들어야겠고, 살 곳을 만들자니 약속같이 싸워야 했다. 돌아 갈 곳이 있는 무리라면 싸우다 불리하면 후퇴하는 수도 있겠지만 돌아 갈 곳이 없어 새로운 생활 근거지를 찾아 다니는 무리였으니 싸움과 죽음 뿐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가족을 동반한 무리였으니 약탈도 극한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처음 침입할 때는 고종 3년이었는데 평안도 방면에서 들어와 평안도는 물론 황해도 지방을 짓밟고 당시 서울이었던 개성을 피해 철원으로 침입하여 양평을 거쳐 원주에서 큰 싸움을 벌였다. 9번의 큰 싸움을 통해서 원주지방의 싸움은 고려 전란사에서 가장 빛나는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그와 같은 9번의 싸움 끝에 침입한 거란족은 횡성, 홍천, 춘천을 침입했다.

당시 춘천은 안양이라 했고 도지사격인 안찰사가 있었는데 봉의산 혈전의 애절한 사실과 함께 안찰사 노주한이 전사했다. 춘천을 완전히 점령한 그들은 원주를 재

침하여 짓밟다가 고려군에게 쫓겨 제천, 영월, 평창, 강릉, 양양을 거쳐 함경도를 지나 여진의 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거란 유족의 침입은 강원도 전란사에서 특이되는 사건이며 도민의 희생도 많았다. 특히 강릉사람들은 그들의 만행을 피해 울릉도로 피난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 죽는 비극을 겪었다.

이러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충은 사력을 다하여 싸웠으나 승전과 패전의 연속 가운데 한 때는 패전의 책임을 지고 파면 당한 일도 있었지만 곧 다시 복직되었다. 그의 활약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거란유족이 재침입한 고종 5년인 1218년으로 그는 서북면수로 임명되어 김취려, 정통보, 오수기 등의 장군을 앞세우고 평안도 방면으로 쳐 들어 오는 적을 맞아 싸웠다. 거란족은 고종 3년에 침입했던 때 처럼 남쪽으로 내려 가려 했지만 조충의 탁월한 작전에 말려 침략의 야욕을 채우지 못하고 강동성으로 도피하는 등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고종 3년 침입 때에 쉽게 막지 못한 것은 최충현 때문이라고 적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최충현의 애기 자윤선이 평안도 백정들에게 가혹한 세를 거두어서 거란족과 합세했다는 점과 둘째, 고려군인

중 젊고 용감한 군인은 최충헌의 사병으로 만들어 실제 고려군은 늙고 힘이 없었다는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조충은 그러한 군대일망정 김취려 등과 함께 잘 싸워 적을 강동성에 몰아 넣고 총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때, 몽고가 원조를 핑계삼아 진주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몽고군과 함께 강동성을 함락시키고 이듬해 정월에 그들의 항복을 받았다. 3년간에 걸친 전란은 이로서 끝났는데 여기서 조충의 처사에 두가지 특수한 점을 들 수가 있다.

첫째는 몽고군의 대장 합진과의 단판 광경인데 주연상이 베풀어진 몽고군진영에서 술을 무한정하게 잔을 바꾸었고 안주는 몽고식으로 칼에 고기를 꿰어 상대방의 입에 넣어 주는 것으로 상대방의 의도에 따라 위험한 일이 벌어 질 수 있는 술자리였다. 그는 시종일관 당당하게 분위기를 제압하여 합진으로부터 형의 대우를 받고 돌아와 당시 합동작전의결과 처리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던 것이다.

두번째는 국사상에도 유명한 것인데 강동성을 함락시키고 거란족의 왕자를 비롯한 지도층은 그 자리에서 처형했지만 그 외의 5만여명의 거란족을 우리나라 곳곳에 분산시켜 살게 하였다. 이 같은 용단은 거란족이 몽고의 일파인데도 불구하고

하고 몽고에서 살지 않고 고려에서 살겠다고 애원한 탓도 있었지만 어제의 적을 한 가족으로 맞아주는 성품 그것이 바로 조충의 인간성이다.

조충이 거란족을 우리나라에서 살게하는 계획은 고려정부에서도 동의 수락함으로써 방방곡곡에 거란족의 촌이 생겨났으니 그것이 바로 거란장이다.

이러한 그는 고종 7년인 1220년 9월 3일 50세로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할 나이에 세상을 떠나니 왕이 조회를 3일간 폐하고 애도하는 등 모두가 안타까와 하였다. 그에게는 정당문학판례부사 수문전태학사의 벼슬이 더해졌고 사후에는 김차광목대부 개부의동삼사 문하시중에 추증되고 문정공의 시호가 내려졌으며 그에게는 처 동주 최씨와 아들 숙창과 계순이 있었다.

조충은 고려때 고종조정에 배향되었고 조선조에 이르러 고려, 태조, 현종, 문종, 원종과 함께 고려 충신 16인 열위의 한 분으로 숭의전에 배향되었다. 그의 묘소는 지금 북한땅인 개성부(시) 상도면 연동의 태조왕비제능 서편 언덕에 있었던 것을 6.25 동란전인 1948년 지금의 황성읍 정암리에 있는 망제 머리는 그의 부음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려 제사드린 곳이고 배행고개는 3원수가 떠날 때 배웅을 하던 곳이다. 그리고 정암의 망백은 벼슬에 오른 후

◎ 郷土史 ◎

손들이 조상께 사된다는 뜻이라고 전해진다. 끝으로 조충의 시중에서 현존하는 시 한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시는 그가 부원수로 출정하였다가 패하여 면직된 뒤에 읍은 시로 그의 한과 애국심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으며 후에 다시 여진의 황기자군을 압록강에서 대파하고 오히려 원수직에 오르게 된다.

만리길 서리 굵이 한번 미끄러졌으니
병마의 비명소리에 시절 바뀔줄 몰랐
노라.

아마도 조부의 본을 받아 다시 주마에
가면하고
모래톱에 유린하는 오랑캐를 꺾어보자.

3. 조계순

조충의 아들로서 그의 조부 영인과 더불어 3 원수라 불린다

익호는 광정공이며 고려때의 사람으로 국자 진사로서 고려 고종 2년인 1215년 3월(정해)에 중랑장구밀원부사를 거쳐서 을청광록대부에 올랐으며 만주에 침입한 황건족을 물리치고 그 용맹성을 널리 떨치고 후혈(입금의 말을 아래로 전하는 일 즉 재상을 이름)을 겸하였다고 한다.

그는 문신으로서의 활약은 눈부셨지만

무신으로의 활약이 더 훌륭하여 상장군으로 무신의 벼슬에 올랐고 고종 36년에는 우승선에 올랐으며 다시 김자광록대부 수태위문하시중 평장사 상장군 관예부 태자소수(동국여지승람에는 관지문하시랑 평장사)에 이르렀다.

조계순의 처는 우봉 최씨로 진강공 최충현의 따님이다.

나. 횡성고씨

※ 고씨의 유래

고씨는 양씨부씨와 함께 본래 탐라(제주)의 지배씨족으로서 제주에는 태초에사 람과 육축오곡이 없었는데 고을나 양을나 부을나 삼신인이 한라산 북쪽 기슭 모형혈에서 솟아나 시조로 탄생하여 삼신일을 유렵으로 피의 육식하고 살았는데 하루는 한라산에 올라가 멀리 바라보니 자니로 봉한 옥함이 동해로부터 떠 내려와 해안에 머무르기에 삼신이 내려와 옥함을 열어보니 그 안에 알모양으로 된 등근 옥함이 있었으며 관대하고 자의를 입은 한사자가 나와 옥함을 열고 세 너와 오곡종자와 우마를 내 놓으며 동해벽랑국에서 왔는데 우리 임금께서 삼녀를 낳아 나이 장성하여 배필을 구하지 못하여 주야로 탄탄하면서 자소각에 올라 서해를 바라보시니 자기가 하늘에

거하고 서색이 령용한 가운데에 명산이 있는데 삼신인이 강림하여 잠차 나라를 세우고자하나 베필이 없으므로 이에 신에게 삼녀를 모시고 오게 하였으니 항력의 예식을 갖추어 큰 국업을 성취하소서 하고는 사자는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 삼신인이 이에 하늘에 고하고 년차로 분취하고 활을 쏘아 거지를 정하였으니 고을나의 거지를 제일도(제주) 라하고 양을나를 제이도(대정) 부을나를 제 삼도(정의) 라 하였고 이로 부터 비로소 산업을 이룩하여 오곡을 심고 우마를 길러 촌락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고을 나가 고씨의 연원을 이루었고, 그 후 구백여년에 이르도록 인심이 모두 고씨에게 돌아왔으므로 고를 임금으로 삼고 국호를 모라라 칭하였다. 그 후 시조 고을 나와의 십오세손 고후고청고개등 삼형제가 신라에 입조하여 각각 성주 왕자도 내등의 작호를 받았고 그 뒤 사십오세 탐라국고 자현왕의 태자 미로가 고려에 입조하여 역시 성주왕자의 작호를 받았으니 그로부터 다시혜아려 미로를 제주고씨의 중시조로 삼게되었다. 그 후 제주고씨로서 내육에 진출하여 명성을 떨치기 시작한 것은 성주 공미로의 아들 유가 처음으로 남성시에수석으로 합격하여 벼슬이 문하시중우복사에 이르렀

고, 그의 아들 배기는 중시시랑평장사로 그의 손자 적은 유충관병부상서로 중시조 십세손 인단은 탐라지휘사로 그의 증손 신걸은 호조전서에 그의 자 봉에는 공조참의로 십오세손 득중은 한성관윤 등을 지내는 등 많은 명현을 배출하면서 후손 제행으로 각기 세거지 또는 조상의 작호에 따라 십오본으로 분적되어 있었으나 그 후 다 같은 혈손이라는 신념으로 대동단합 고을나를 도시조로 하고 제주고씨로환적하였다. 그리하여 제주고씨는 시조로부터 구십오세가 되는 오늘에 있어서는 고씨일족이 전국각지에 많이 분포되어 무릇 천여년동안 각시대를 통하여 혹은 도덕과 문장으로 혹은 학행과 벼슬로 그리고 충효와 의열 등으로 국가의 동양이 되었건 인물들이 헤아릴 수 없다. 이곳 횡성에는 중시조 십일세손 인비가 횡성에 화전군을봉하고 그의 오십세손 용경이 문과에 급제 병조참판겸 동지의금부사를 지냈으며 횡성 내추동산에 묘소가 있고, 그의 자고용의 선무랑급성 현령 겸 권농단 연관관 정이품 자대부 이조판서 겸 지의금부사를 역임하고 횡성망백산에 그의 자사민이 공조참판과 울산군수를 지내고 횡성 내추동산에 그의 제사신은 승정대부의 정부 좌찬성 겸 행계공랑을 역임하고 횡성

망백산에 그의 차자형산은 승정대부의정부
우찬성 사헌부집의 함경 강원도 관찰사호
병판서를 역임하고 횡성 망백산에 묘소가
있으며 화전은 횡성의 고도로 그 후 후손
들이 번성하여 횡성을 중심으로 인근 원
주, 홍천 영월 등지로 분포되어 문충공파
와 화전군파계의 후손 구백여호가 살고있
으며 이 곳 횡성에 종문회사무실을 두고
매년 2월에 횡성에서 원주 횡성 홍천 지
역의 종문회를 열고 많은 종친이 모여 제
주고씨종문의 발전과 단결을 다지는 행사
를 갖는 등 지역의 대성을 이루고 있다.

※ 횡성고씨

횡성고씨의 시조는 고 인비이다.
고인비는 상장군으로 화전군에 봉해졌으
며 후손들이 둔내면 궁중리에 대를 이어
살아왔고 횡성읍 정암리에도 거하여 살
았다.

중요인물로는 고려때 문과에 급제하여
찬성을 지낸 고희산과 중익부단사를 지
낸 고 휴와 고 향산, 고 태지 등이 있다.
또한 고 주몽의 후예라 하며 조선 개국공
신이었던 고 휴가 왕자의 난에 화를 입어
갑천면 화전에서 공근면 덕촌리 화전부락
으로 이사하여 세거했다는 설도 있다.

※횡성고씨 문중의 인물

1. 고희산 횡성고씨의 대표적 고희산은
1453년 단종 1년에 태어나 1528년 중종
23년까지 살았으며 조선조 중기의 문신
으로 자는 정숙이였으며 사신의 아들이다.
1483년(성종 14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연산군때에는 해주 목사 함북 병마절도사
를 역임 했으며 중종때 형조판서, 호조판
서, 병조판서를 두루거쳐 나중에는 벼슬이
우찬성에 이르렀다.

1519년(중종 14년)에는 남곤 일파와함
께 기묘사화를 일으켜 조광조 일파를속청
하였다.그 후에 기노소에 들어가 여생을
마쳤다.

그는 평소 성질이 질박하고 정직하고부
지런하며 검소 하였다.또 한 오랫동안 군
의 병사와 금전과 양곡을 관리하는직임을
맡아 처리하고 매우 정밀하였으며 일을
정비한 것이 많았다.그 중에서도 서울에
서 강릉까지의 도로를 개통한 그의업적은
높이 살만한 업적 가운데 하나였는데 공
교롭게도 병자호란때 주문진에 상륙한 적
군이 이 도로를 따라 한양을 함락 시켰다.
하여 국왕이 대노하여 고희산은 무거운 죄를
뒤집어 쓰게 되었다.그 후 고희산의 경강
선 개통에 대한 재평가로 그의 무고함이

밝혀지고 그에 대한 업적의 지대함에 대한 보상으로 나라에서는 고 판서묘가 있는 횡성군 횡성읍 정암리 망백 마을의 사방 십리의 땅을 하사 하였다.

시호는 위열공 이었다.(성종 계묘년 에 문과에 급제 하다.)

2. 고 휴 횡성 고씨로 고려 말엽에 무과에 등제하여 평안도 중익 부단사를 역임하고 조선 초기에 개국 공신이 되었다.

3. 고 태지 횡성 고씨로 절도사 휴의 자이며 태종조에 생원이 되었다가 음으로에 변사 소윤이 되었다.

다. 횡성 지역내에 세거성씨

*횡성읍

- | | | |
|----------|---------|-------|
| 1. 횡성조씨 | 세거지 정암리 | 망백마을 |
| 2. 니주임씨 | // 학곡리 | 쇠판이마을 |
| 3. 김해허씨 | // 모평리 | 마을 |
| 4. 밀양박씨 | // 반곡리 | 가담리마을 |
| 5. 우봉이씨 | // 목계리 | 반곡리마을 |
| 6. 김해김씨 | // 마산리 | 마을 |
| 7. 원주이씨 | // 남산리 | 마을 |
| 8. 진주정씨 | // 반곡리 | 마을 |
| 9. 여량진씨 | // 개전리 | 마을 |
| 10. 선주도씨 | // 정암리 | 마을 |

*우천면

- | | | |
|---------|---------|----|
| 1. 횡성조씨 | 세거지 산전리 | 마을 |
|---------|---------|----|

- | | | |
|---------|---------|----|
| 2. 원주원씨 | 세거지 우항리 | 마을 |
|---------|---------|----|

*안흥면

- | | | |
|---------|---------|------|
| 1. 경주이씨 | 세거지 지구리 | 아랫마을 |
| 2. 전주이씨 | // // | 윗마을 |
| 3. 정선전씨 | // // | 마을 |
| 4. 강릉김씨 | // 가천리 | 마을 |

*둔내면

- | | | |
|---------|----------|------------|
| 1. 경주김씨 | 세거지 자포곡리 | 둔방내리 석문리 |
| 2. 밀양박씨 | // 둔방내리 | 조항리마암리마을 |
| 3. 강릉김씨 | // 두원리 | 마암리 화동리 마을 |
| 4. 원주이씨 | // 석문리 | 마을 |
| 5. 횡성고씨 | // 궁중리 | 마을 |
| 6. 죽산안씨 | // 현천리 | 마을 |
| 7. 청주김씨 | // 석문리 | 마을 |

*감천면

- | | | |
|---------|----------|--------|
| 1. 청주김씨 | 세거지 대관대리 | 마을 |
| 2. 기계유씨 | // 화전리 | 마을 |
| 3. 연일정씨 | // 포동리 | 마을 |
| 4. 여양진씨 | // 중금리 | 마을 |
| 5. 김해김씨 | // 병지방리 | 추동리 마을 |

*청일면

- | | | |
|---------|---------|----|
| 1. 청산정씨 | 세거지 초현리 | 마을 |
| 2. 경주김씨 | // 춘당리 | 마을 |
| 3. 안동권씨 | // 유동3리 | 마을 |
| 4. 연일정씨 | // 감천1리 | 마을 |

*공근면

1. 진주유씨 세거지 상동리 부창리 마을
2. 초계정씨 // 학단리 공근리 가곡리 마을
3. 청송항씨 // 매곡리 마을
4. 이천서씨 // 매곡리 산디골 마을
5. 진주이씨 // 매곡리 안담 마을
6. 김해김씨 // 학단리 노루미 마을
7. 한산이씨 // 수백리 청곡리 마을
8. 횡성고씨 // 덕촌리 회진 마을
9. 원주이씨 // 오산리 매곡리 던촌리 마을

010. 원주원씨 // 삼베리 마을

*서원면

1. 김해김씨 세거지 산현리(원성군에편입)금대리마을
2. 청주한씨 // 옥계리(대산)마을
3. 강릉최씨 // 압곡리 마을
4. 안동김씨 // 옥계리 마을
5. 김해허씨 // 금대리 마을

청 자 항 아 리

곽 영 기

흙에다
불을 먹여
비취색 혼이 들면

우리 얼 꽃병이 되어
귀한 자리
지키지만

오문 입
비운 속에는
아직도 불길삭히네

—호암미술관에서—
87.9.16



송광사에는

곽영기

윤회 바퀴
끌고, 밀어
조계산에 축을 박고

흙 빛의 삶을 저다
좌선으로
비워내니

무지개
은하에 일어
머리머리 꽃비 오네.

87.7.10



석양에

박영기

박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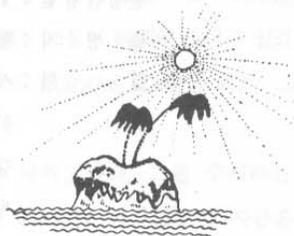


활, 활 타는 하늘
사과처럼 익은 해에

웃진 같은
사랑, 미움
새떼처럼 날려와서

앙금진
내 안의 바닥엔
또 한차례 격랑이 이네.

87.8.23



초상화



곽영기

빛 바랜
그림인데
숨소리가 새어난다

조용히
듣노라니
입 가스로 미소 지으며

가녀린
눈길을 흘러
내 행색을 되 살핀다.

—호암미술관에서—
87.9.16

출생년월일 : 1939.10.20

출 생 지 : 황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189번지

경 력 : 시조 문학천료

한국 시조 시인협회 회원

강원 시조문학회장

제 1 시집 “개나리”

제 2 시집 “대관령”

현 강릉대학 근무

어느 女人의 傷心처럼

李 振 雨

몇년 前의 일이다.

한 女人이 新聞에 呼訴한 글의 內容이다. 어느 날 親庭 어머니를 모시는 旅行을 하게 되었다. 現今과 같이 觀光旅行이 아니고 어머니를 親庭으로 모시고 가는 길이었다. 이 날은 유독 승객이 많아서 車마다 超滿員이었다. 座席을 讓步받지 않으면 아니 될 立場이었다. 어찌나 車內가 비좁았던지 콩나물시루를 聯想하리 만큼 여름인지라 삼시간에 熱氣로 온 몸은 땀으로 젖었고, 슬한 惡臭가 波勞를 加速시켰다. 老母는 氣力이 없는 데다가 呼吸困難, 몸 가누기 等 苦痛스러운 心情이 얼굴에 그려질 때마다 딸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하였다.

얼마간의 時間이 지난 뒤 女人은 가까운 자리에 젊은 男子가 앉아 있는것을 目擊하고는 한날 어머니를 便히 모시게 할 수 있다는 希望을 갖게 되었다. 젊은 青年에게 딱한 事情을 알리면 곧 座席을 讓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期待에 가까이 다가갔다. 좀처럼 열리지 않는 門을 열었으나 期待와는 달리 젊은이는 無應答이었다.

女人은 일시에 無顏과 같은 忿怒를 느꼈다. 女人의 心境에는 형용하기 어려운 저주의 칼을 갈고 있었는지 모른다. 分明 怨望스런 일그러진 마음에 소나기 구름을 몰았을 것이다. 懇請하기를 세번. 어렵고 좋은 이야기는 다 동원하였지만 始終一貫 無反應이었다. 젊은이의 不徳한 行爲에 周圍사람들도 大惡無道한 視線과 더불어 糾彈의 소리가 일었다.

女人도 이제는 더 座席讓步要請을 할 수 없었다. 어떤 敗北같은 心情을 깨진 그릇을 모으듯 서서 집에까지 가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러나 양갈진 눈 길은 젊은 青年의 거동을 읽는데 박혀있었다. 그를 주시하는 視線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꿰뚫어 猛獸의 의기, 찬란한 기세가 아니었는지 지금은 참으로 헤아리기 힘들다고 말하였다.

어느 停留場에 車가 停車하였을 때 젊은이는 괴성을 지르며, 빨리 下車하였고, 女

❖ ♣ 隨想 ❖ ~~~~~

人은 老母와 함께 讓步받으려 하던 座席에 앉아 平安한 旅行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어렵게 차지한 座席인지라 옅은 파도가 밀리듯 일그러진 마음은 밀려 가고 平溫天地가 긴 한숨을 몰며 車窓밖으로 視線을 던질 때 ‘아차!’ 하는 순간 女人의 가슴엔 泰山같은 마음이 입시에 무너지는 아픔을 씹어야만 했다.

商街를 돌아서는 그 젊은 青年은 한쪽 다리를 잘 옮겨 던지 못하는 不具였다. 不具의 몸을 남에게 보이고 싶지않아 쓰러질듯 쓰러질듯 하며 황급히 카드를 돌아가는 그는 死力을 다 하였을 것이며 지금도 눈에 선하다.

青年은 要請하여 오는 女人의 어려운 事情에 과연 어떤 生覺을 하였을까? 老人에게 座席讓步를 못하는 不道德한 處事. 그렇다고 座席을 讓步하고는 도저히 서서 갈 수 없는 不具의 몸을 얼마나 卑下했으며, 아픔을 씹으며 얼마나 고뇌하였을까? 병어리 아닌 병어리. 수 없는 葛藤의 아픔을 씹다가 目的地까지 못가고 中途에서 下車한 것이다.

女人은 이렇게 지운 마음의 상흔을 갚기 위해 그간 젊은 青年을 찾아왔지만 인연이 닿지않아 이제는 新聞에라도 自己의 잘못을 사과하여 몇만분의 일이라도 가벼운 마음을 갖고 싶다고 한다. 白日場 審査委囑을 받고 가던 어느 날의 이야기다.

日曜日 午後 2時여서 六月의 曝陽은 가만히 있어도 물줄기가 몸에 흐르는 숨 가쁜 더위, 햇볕에 뜨겁게 단 버스천정에서는 기사적인 熱氣를 내뿜었다.

늦게 車에 오른지라 座席은 아예 生覺도 없었다. 늘 그런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車가 움직이면서 밀친 車窓으로 시원한 空氣가 들어왔으나 그것도 잠깐뿐 34~5度の 불볕 더위에 더위 그것 밖에 다른 것은 찾을 수 없었다. 강이나 내에서 목욕하는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지는 時間이었다.

옆에 서있는 사람의 옷깃이 닿아도 짜증스런 살인더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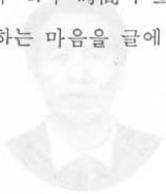
몇 km 달렸을 때에 앞에 앉아 있는 青年 한 사람이 일어나며 座席을 讓步한다는 意思를 表示하여 왔다. 나는 즉각 辭讓하였다. 밀고 당기는 座席讓步와 辭讓하는 時間이 數分을 넘었다.

그 青年은 正常人처럼 言語가 통하지 않는 不幸한 青年이었다. 자리에 앉아서 ‘어느 女人의 傷心처럼’ 같은 立場임을 의식하며 罪스런 마음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가 크구 辭讓하는 짐을 받아 무릎에 놓아 짐은 덜어 주었지만 …….

▲ 隨想 ▲

우리 社會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美風이 많다. 수치스러움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罪意識에 儒教思想을 實踐倫理로 살아온 값진 유산의 소산이라 믿는다. 받아서 좋은 것이 아니요 人倫之德을 쌓는 삶이 모든 사람으로 부터 尊敬받는 社會를 이룩하기 때문이다.

하루 하루 時間이 흐름에 따라 잊어가는 言語不能의 不幸한 青年의 고마운 마음씨에 感謝하는 마음을 글에 담아 오래 오래 記憶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李 振 雨



- 李振雨 : 現 住 所 : 忠北 清原郡 江內面 豬山國民學校 사택에 주거
본 집 : 淸州市 錦川洞 삼일아파트 3동 202號 電話 62 - 4344
故鄉住所 : 江原 橫城郡 隅川面 法周里 225 番地
橫農高卒 李 振 雨 詩人

開 花

터질듯 부풀기슴
웃음으로 열어놓고

오롯이 솟아올라
소망으로 피는 목숨

至純한 그 눈빛속에
일렁이는 봄하늘

은은한 속삭임에
四月이 열리는데

質고운 마음자락에
점점이 번지는 불꽃

그리움 활활 타오른.
詩人의 영혼인가.

은홍빛 마음설에
머스잡 모두어서

이승의 골목마다
밝음으로 여는 한낮

새 날로 발돋움하는
아름다운 발원이여.



김 성 수

- 김성수 경력 : • 1943.9.17 우천면 산저리 출생
• 춘천 교육대학 졸업
•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
• 제 9회 창주문학상 수상
• 제 8회 원주시 향토문화상 수상
• 한국 문인협회 강원지부 이사
• 한국 예총 원주지부 감사
• 원주시 복원국민학교 재직

은 장 도

수 율 15

김 성 수

삼단같은 머리카락
서슴없이 잘라서

남군님 과거길에
노자로 없해주던

여인의 일편단심
서슬푸른 은장도

독수공방 후원에
달이뜨는 밤이면

그리움 타는 가슴
두견새로 우는데

은장도 꺼내들고서
가슴한점 도려낸다.

청상의 아린한을
웃김으로 여미면서

목숨보다 더 귀한 정절
칼날 속에 숨겨두고

그마음 붉게 타올라
우뚝솟은 烈女門



눈내리는 밤에

김 양 수

눈(雪)이 내렸다.
하늘이 무너져 내렸다.
무너진 하늘을 덮고 섰다.

하얀 별판
끝없이 걸어 보아도
제자리에 있다.

하늘이 두 개다.
머리 위에 또 발 밑에

갯빛과 흰색
그리고 까만 밤이 누워있다.
무채색 추억이 숨어있다.



경력 : • 1953.2.22 횡성출생

- 1984 강원일보 신춘문에 동화당선
- 1984 아동문화 평론지 동화데뷰
- 1987 인제국민학교 교사

病室에서

(II)

일찍이 몰랐던 세상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지해도 이젠 소용없어



왜 내게로 왔을까? 송 수 영
허술한 때문 때문?

이 세상 가장 귀중한 것을
잃어버린 서글픔에
누울 수 밖에 없는
한 줄기 외로운 소망

이 몸의 자유는 어디 갔는가
할 일도 많은데
그리운 얼굴도 많은데

건강할때 고마움 되새기며
병실에 커튼을 내린다
일찍이 몰랐던 세상
종이 배가 부러운 세상
어서 살얼음판을 떠나고 싶다.



於斯買 사랑

김충구



맑은물 蟾江가 머리감는 아가씨
 於斯買 後孫이라 하도 예뻐서.
 나는야 뛰어가 손목을 잡고.
 함박꽃 길따라 달려볼래요!



泰岐山 봉우리에 햇볕 비추면
 晴日들 호프발 一品이라네!
 꽃따는 아가씨 고와.
 느티나무 아래서 안아볼래요!

고속도로 길따라 嶺東엘 가다가
 새말 風車 밑에 저 착한 아가씨.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다 보니
 가던길 잃고서 예가 좋구나!

鴨谷山 白鴨야 시기를 마오
 於斯買 아가씨와 영원한 사랑을……
 산 좋고 물 맑은 내고향 橫城
 나의 혼 물힐곳 여기뿐이라.

사랑이 앙금되어



앙금 / 앙금은 침묵 고요 부서진 고통의 잔재로 겪을 것을 다 겪은 달관의 모습이다.

앙금은 깨끗한 조용한 물의 세례를 받은 쓸쓸한 노수녀의 모습이다. 건드려도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가라 앉은 순교자의 모습이다.

고운 앙금일수록 참고 견디며 양보와 시기, 질투, 동요, 투쟁, 음 권 용 환 모, 미움의 기색조차 없는 곳이어야 중력의 순서대로 자리 잡는다.

앙금은 바람과 홍수는 싫어 하나 햇살은 좋아한다. 흔들리지 않는 꽃을 좋아한다. 화려한 장미 보다는 고요한 물가 풀속에서 고운 향기를 조심스레 분사하는 작은 꽃을 좋아한다. 그러기에 이 앙금은 청자 백자를 낳는다. 유전인자가 표출된 청자 백자는 청아하고 우아하고 은은하다.

돈과 명예와 지위를 뒤로한 지인달사한 촌가의 선비 모습이다. 물 없는 앙금은 없다. 물의 적응으로는 더이상 할 수 없어 포기한 것이 앙금이다. 사랑의 앙금 / 나는 어느공사장에서 감독의 총애를 쌓아 가는 진실한 청장년의 “순필”이를 본다. 일하다 쉬는 그의 옆모습이 “순필”이를 닮았다. 나는 23년전 “순필”이를 생각한다.

* * * * *

12월 24일날 문방구서 반짝이 등이 가슴을 설레이게 하며 음반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캐-롤은 젊은이의 가슴을 공연히 들뜨게 한다. 예쁜 포장지에 싼 선물을 들은 세 소녀는 너무나 예뻐 보였고 교회 앞문 추리와 반짝이는 등은 나의 발길을 재촉했다.

교회 학교(주일학교) 행사가 10시에 끝나고 청년회학생회 선물교환 프로그램이 끝났다. 유치원(화성유치원) 박선생님이 보조교사와 함께 나를 찾느라 뛰어오며 “권선생님!” “권선생님!” 소리치며 다가온다. “늦었어요 빨리 준비해요.” 나는 싼

❁ 文 藝 ❁

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유치원 원아가 40명인데 집집마다 다니며 낮에 미리 어머니가 준비한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선물 걸 포장지에는 선물 받는 어린이의 결점이 다 적혀 있는 것이다.

“선경아!” “선경아!” 신타 할아버지가 왔다. 이리 나오너라! 노인 소리로 변성을 하며 대문을 들어선다. 대문 밖에 유치원선생님 두분은 재미있게 웃으며 문틈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개는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며 쫓겨 들어가 마루 밑에서 쫓아내는 개도 있었으나 흰이를 보이며 물으려고 덤비는 개도 있어 신타 할아버지는 개를 제일 싫어 한다. 방에서 놀던 선경이는 엄마와 함께 마루로 나온다. 선경이는 “정말 신타할아버지가 있구나!” 생각하며 의아해 하기도 하며 겁먹은 모습으로 엄마를 잡고 나를 본다. “선경아!” “네!” “선경이는 누나와 잘 싸운다면서?” 선경이는 어떻게 그런것을 알까하고 대답한다. “앞으로는 싸우지 말고 밥도 잘 먹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요.” “예” “꼭 그렇게 약속하면 선물을 주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갈거예요!” “네 약속 하겠습니다.” 겁나 하면서 대답한다. 그러면 나는 선물 주머니를 내려 놓고 선경이 엄마가 마련한 선물을 꺼내준다. “신타 할아버지는 잘 길어 멀어 가겠습니다.” 선경이 어머니는 “내년에 또 오세요.” “선경이가 내년에도 착한일 많이 하면 또 오지요.”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뒤돌아 서면 선경이는 방에 들어가 선물을 펴보고 좋아한다. 선경이 아빠는 선물에는 관심이 없고 신타 할아버지와 약속한 내용을 다시 다짐하며 교육하기에 바쁘다. 선경이 엄마는 대문 밖으로 쫓아나와 유치원 선생님과 호들갑을 떨고는 “신타 할아버지가 누구야? 누구야!” 하며 묻는다. “권선생님 이에요.” “어머 그런데 목소리가 딴 사람이야!” “권선생님 수고 하시네요. 신타 할아버지 수고 하시네요. 신타 할아버지 선물 받으세요.” 하며 오허려 선경이 엄마는 신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다. 아마 미리 유치원 선생님이 몇몇 관심있고 친한 어머니에게는 신타 할아버지 선물을 부탁했던것 같다. 선물은 먹는 과자 빵 그런 것들이다. 추운 줄도 모르고 재미있게 40집을 다 다니고 나면 밤 1시쯤 된다. 이젠 기진해지며 배도 고프진다. 음식점을 찾으니 송강루에 불이 켜져 있었다.

들어갔다. 종업원들이 신타 할아버지를 반가히 맞으며 의자를 내 놓는다. 짜장면을 먹

으며 나는 박선생님과 이런 이야기를 했다.

“박선생님! 어머님들이 주신 선물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구치소 (유치장) 에 가서 불쌍한 그들에게 주고 읍시다.” 했다. 그러자고 하면서 박선생님은 선물 보따리를 챙겼다. 꽤 많은 빵과 과자 양말을 큰 보에 싸서 들고 경찰서로 향했다.(그 당시 경찰서는 지금의 군청 서편에 있었다) 당직 근무하시는 분에게 말씀을 드렸다. 우리를 유치장으로 안내 했다. 처음 보는 유치장에 약간 긴장해 하며 뒤 따랐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난로 옆에 조그만 책상이 하나 있고 그책상 앞에 정복 경찰이 총을 들고 일어서며 “근무 중 이상 없음” 하고 거수경례로 신고 한다. 쇠 창살을 들여다 보니 세 사람이 이구석 저구석에서 꾸물 꾸물 짐승처럼 움직이며 누운채 눈만 반짝이며 보고 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며 우리 쪽으로 다가 오는 것이다. 신타 할아버지와 두여인, 그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반가움이 조금은 있는지 자기 식구 중에 비슷한 이가 있었는지 이 깊은 밤중에 자기들을 찾을 이라고는 없을텐데 어쩐일인가? 의아했는지 다가서는 그에게는 인간성이 정이 그리고 식구가 친척이 친구가 그리움 냄새가 풍기는 것 같았다. 창살 앞에 우리 셋은 무릎을 꿇고 내가 말했다. “우리는 횡성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화성유치원에서 왔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인데 성탄절 행사를 하다가 여기가 생각나서 찾아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주고 갈터이니 이리로 가까이 오세요. ”

그중 한사람은 일어나 앉고 한사람은 귀찮다는 듯이 눈을 감아 버리는 것이다.

“이리로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

먼저 다가 온 이는 어느새 우리와 함께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도 다가와 앉는다.

나는 창살사이로 손을 넣어 그들의 손을 잡았다.

손은 따뜻했다. 정이 흐르고 사랑이 흐르는 것 같았다.

“눈을 감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세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부모 형제를 위해서 나도 모르게 흥분해서 열심히 땀흘리며 기도했다. 그중 먼저 다가 왔던이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다. 나의 손등에 흐르는 눈물때문에 간절히 기도 할 수 밖에 없었다. “아멘” 눈을 떠보니 그는 눈물을 주먹으로 닦고 있었다. “이젠 사회에 나가시면 꼭 예수믿고

훌륭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손을 흔들어 확인시켜 주었다. 울던이가 “네 고맙습니다.” 하였다.

우리는 싸 가지고 간 것을 퍼 주려고 했다.

그랬더니 근무순경이 안된다고 했다. 지금은 음식을 먹을 시간이 아니며 한꺼 번에 이렇게 많은 음식을 주면 안된다고 했다. 우리는 그순경에게 부탁하고 그들에게 이름을 물었다. 그중 울던이만 이름을 말했다.

“X순필입니다.” 성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우리 가까운 친척중에 순필이라는 이름때문에 지금까지 기억한다.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유치장을 나왔다.

당직근무자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들어 간다.

우리 셋은 한참동안 말을 하지 않고 걸었다.

멀리서 새벽송 도는 찬송소리가 간간히 들린다.

“요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별이 유난히 반짝이며, 바람 타는 찬송이 아름답게 들린다. 영광과 기쁨이 가득한 것 같다.

* * * * *

“순필이 옆모습과 똑 같아!/!”

나는 중얼거리며 그때의 그의 행동으로 보아 분명히 그는 훌륭한 한 사회인으로써 어느 곳에서든지 열심히 착실하게 성실하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 갈 것이다.

양금/ 사랑의 양금/ 그리스도의 사랑의 양금/ 진흙의 양금은 청자 백자를 만들지만 사랑의 양금은 훌륭한 인물을 그 훌륭한 인물은 이 땅위에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널리 퍼는 하나님의 아들 된 영광을 증거하며 살아 갈 것이다. 태양이 뜨는 한 -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한 - 하나님의 섭리가 끊이지 않는 한 -

나는 순필이가 전기밥솥을 사들고 킁킁한 밤길을 헤치며 발걸음을 재촉하여 대문을 밀고 들어서며 “여보”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것 같다. 복실강아지가 반기다 밝히어 끄끔대며 국민학교 다니는 아들 딸이 문을 박차며 엄마보다 앞서며 우등통한 부인은신을 끌며 쫓아 나온다. 거무튀튀한 아들 녀석이 날새게 들고 방으로 들어 간다.

“애, 조심해라.”

그림이 예쁜 통을 뜯느라 야단이다. 설명서와 함께 나온 은빛 솔은 순필이 부인을 닮았다.

부인은 어루 만져보며 “탄탄하게 생겼네!” 이내 밥상을 들여 오는 부인 네식구는 밥 한술
며 넣고는 한번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부인은 몇번은 만져 보곤 한다.

순필이는 패전 직전의 전쟁터에서 묘한 전술로 승전한 장군 같이 보였다.

행복한 저녁한 때 아이들은 잠이 들었다.

이속하도록 중얼대는 순필이 내외.

어느 도시의 이층 양옥집 속의 대화 -비서실의 미쓰박 사표 관았어요? 내일은 그
돈 받을려면 고소해야겠어! 그교 수를 만나 봐야 돈으로라도 어떻게 해 보잖아! -
와는 전혀 다른 순필내외 의 소박한 이야기들.....

내일 아침이 빨리와야 전기 밥솥에 밥을 할텐데.....

처음 하는 것이라 실수나 안할까? 보통 솔보다 물을 많이 부어야 하나 어찌나 하며
고맙다는 인사로 나무껍질 같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아 보는 부인, 전등불 그늘에서도
좀 붉어진 부인의 얼굴을 보며 “자 이제 그만 잡시다.” 사랑의 앙금은 또내린다.

청자와 백자를 만드는 사랑의 앙금!

사랑의 앙금! 앙금!

1988. 2 .



* 출 생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조곡리 377 번지

* 주 소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1 구 359

* 근무처 : 대 동 여 자 중 학 교 교사 20 년 근무

고담은 耳順의 고개

金基元

구비도는 無限의 時空을
 하염없이 흘러간 風霜
 보람없는 그 물결 위로
 白身은 悵悵히 漂流하였네.

耳順은 꿈결인양 고개를 넘어
 悵然한 行休의 길목에서
 遑遑히 돌아가는 去留의 岐路를
 彷徨하는 彌留만이 哀悽로워라.

血族과 伴侶들은 둘러 앉아서
 두 손모아 快癒를 祈禱하는데
 伴形의 痛恨은 눈물이 되어
 뻗저린 가슴으로 넘쳐 흐른다.

새벽의 단잠을 몰아쫓은 注針은
 水蛭인양 血律을 빨아 삼키는데
 「나이팅게일」의 仁慈한 모습은
 「마리아」像 처럼 瞳孔에 어린다.



청소년 학생백일장
시부 : 초등부 최우수상 수상작

나의 故郷

성북국민학교
4~1 박현숙

언제나 5월이면
햇님이
놀러오는
나의 고향

겨울에는
눈님이
놀러오는
나의 고향

지금은
그 정다운
고향을
떠나 있지만

꿈에서는
햇님과 눈님이
놀러와
술래잡기 놀이

고향의 냇가로 가면
숨사탕처럼
구름 한 입
꿀 깍

밤에 냇가로 가면
사탕처럼
별 하나
꿀 깍

‘아. 언제나 가볼까
나의 고향
커서나 가볼까’
내 그리운 고향을 생각만 한다.



나의 故郷

횡성 국민 학교

5~1 이용미

덕고산 우뚝 솟은
나의 고향 횡성

봄에는 진달래꽃
꽃동산 이루고

여름에는 푸르른 숲
아름다운 새 소리.

가을에는 누우런 벼.
빨간, 노란 단풍잎.

겨울에는 하이얀 눈
처마밑에 고드름.

농부들의 피땀어린
논과 밭에는
좋은 벼, 싱싱한 채소
풍년이루네.

덕고산의 산줄기
동, 서, 남, 북 퍼져있고,
아이들의 힘찬 발걸음
미래의 튼튼한 기둥.

좋은 길, 좋은 환경
발전하는 횡성.

나라를 위해
3·1운동 하던
삼일공원에
지금도 그 목소리
힘차게 들려오는 곳.

내 고향 횡성
살기 좋은 곳
발전하는 곳



『시 부』
중등부 최우수상 수상작

於 斯 買

대 동 여 중
3~2 이 도 경

푸르름 짙게 깔린 녹음아래,
버들내 풀피리소리로
구름을 노래하고,
해맑은 꽃바다로
소랏빛 하늘을 부르던
내 고향 어사매

시간이 흐르매,
녹음을 꺾고 들어선 공단과
푸르른 하늘빛 사이로
파도치듯 밀려들던 작박한 연기...
햇빛을 등에지고,
달빛을 한껏 받아물며
시나브로 모든것이 변해가던
내 고향 어사매

세월이 흐르고
대 되 변하더라도
꽃꽂하게, 하나 변하지않은 것은,
오직하나
내 고향 어사매의 돈독(敦篤) 함이리라.



● 이 도경 ; 대동여자중학교 3학년 2반

● 주 제 ; 변해가는 행성의 모든것중에 오직 유일하게 자리한
행성의 풋풋한 인정을 나타내려 함.

『시 부』
중등부 우수상 수상작

시 부 187
최우수상 수상작 부문

두레박에 담긴 고향

중 187
최우수상

대 동 여 중
3~4 원 순 진

메달라 가는 목줄을 당기며
달아오른 살갓을 물속에 비벼본다.

물속으로 식어드는 체온과 함께
기대어 오는 두레박이
희미한 영상만이
고향을 싣고 온다.

넘칠 듯 담긴 고향이
텅빈 가슴속을 향해 쏟아지는 순간
그리움의 눈물을 버릴 수가 없다.

멀리 떠나버린 고향을
밟을 수는 없는지
갈래 갈래 찢겨진 두레박을
여밀 수는 없는지.

가슴속으로 사라진
두레박에 담긴 고향을
초원의 메아리처럼
넓게 넓게 새겨 울리고 싶다.



『시 부』
고등부 최우수상 수상작

고등부 최우수상 수상작

옥 시 기

둔내 고등학교
1~1 심철호

돌밭 골골이에서
흰수염 나부끼며
“사르각 사르각”
세월을 보내고있다.

감자바우 밑에서
푸르름을 함께하고 태어난
옥시기는
평온한 모습을 자아내고있다.

구름과 노닐다 지나간
바람을 쫓는
오뉴월의 옥시기는
고향 하늘을 달래려
향수를 그리고있다.

인정에 목마른
사막아닌 사막을
홀로걸으며 쓴 미소를 짓는
옥시기는
향수에 젖어, 시린 눈물을
흘리고있다.

홀로임에 지친
옥시기는
어느새 고향 내음을
즐기고있다.

산과내의 노래소리는
세월의 흐름을 제촉하는데,
따가워 시린 태양을
머리에 쓴, 옥시기의
눈망울은 맑기만하다.



『시 부』
고등부 우수상 수상작

나의 고향

갑천고등학교
2~2 이상순

바위산 너머로
아침의 찬 이슬을 먹은
붉은 동그라미가 모습을 나타내었다.

산세의 지저귌속에
떠엄떠엄 흰 연기를 내며 오르는 집집의 굴뚝 위에
아침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다.

동네 어귀의 낮은 성황당 위에
푸르름에 여울진 보리밭의 출렁임속에
오랜 세월의 인고에 썩어버린 한쪽 가지를 가만히 바라보는 배나무의 작
은 잎새에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본 그 밝은 햇빛이
영원 불변의 진리 속에
오늘도 변함없이 내 살던 곳, 내 살고 있는 곳을 비추고 있다.

가만히 눈 감으면 고향의 소리가 있다.
그리고
내게 들려 온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고향은 마음 속에 있는 거야.
네 마음에
아름다운 고향을 심어보렴.



나의 고향

횡성국민학교

6 ~ 3 이 보 람

며칠전 내 동생 아람이의 손을 잡고 아
빠와 함께 삼일공원 비탈길을 올라갔다.

비록 높고 가파른 길이라 오르기도 힘
들고 숨도 가뻐지만 올라가 보니 가슴이
탁 트였다.

나는 오르자마자 삼일공원 넓은 들판에
서 아람이와 함께 뛰어 놀았다.

삼일공원 기념탑에 올라가서 뛰고 박차
기도 하였다.

“야호, 빨리 와.”

찌렁찌렁 울려 되돌아왔다.

한참 신나게 노는데 내 동생 아람이가
삼일운동 기념탑을 가르키며

“언니 그런데 이게 뭐야?”

하고 물어보았다. 그래서 내가

“응 저건 삼일운동기념비란다.”

하고 말해 주었다. 그랬더니

“에이 언니는 그게 뭐야. 누가 그걸모
른다고 했어. 그건 삼일기동탑이잖아.”
하고 말했다.

“기동탑이 아니라 기념비이지.”

나도 약이 올라 뻑 소리쳤다. 그랬더니,

“그래 기념비.”

하고 시치미를 뚝 떴었다.

“아뭏든 그게 뭐야. 뭐냐구.”

아람이는 계속 물어보았다.

“응 - 그건 그거야 빨리빨리 놀거나
하자.” 나도 사실 잘 알지 못했다.

“빨리 그게 뭐야?”

자꾸 물어 보는 아람이를 물리치고 집으
로 데리고 왔다. 나는 얼굴이 빨알게졌다.
동생앞에서 너무나도 미안하고 창피했다.
아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잘난체만
하는 내가 부끄러웠다.

이제 겨우 코흘리개인 동생이지만 나
보다는 내 고향에 대해 더 많이 알게 해
주어야겠다.



발전하는 내고장

횡성 국민 학교
6~1 조성란

지난 5월 2일 우리 학교에서는 소풍을 갔다. 소풍 장소는 개울이 있는 내지리르 갔다.

소풍가는 길에는 가뭄이 계속되어 말라 있는 개울이 보이고, 개울의 반대쪽에는 논이 보이고, 그 논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소들이 있었다.

개울에서는 공사가 한창 벌어지고 있었다. 시멘트로 강을 막고, 포크레인으로 강물과 흙·돌을 퍼올리고 있었다. 나는 이 공사를 어떠한 목적으로 왜하는지 궁금하여 선생님께 여쭙어 보았다.

“선생님, 이 공사는 무엇을 만들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하고 여쭙어 보았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이 공사는 관광개발을 위한 요트경기장을 만들기 위하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란다.”
하고 설명해 주셨다.

요트 경기장을 만들기 위한 공사는 참 재미있었다. 나는 멍하니 공사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러한 공사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횡성의 관광 개발로 인하여 우리 고장이 잘 사는 고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였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보니 벌써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소풍 장소에서 아이들은 물에 뛰어 들어 수영을 하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물총을 가지고 쏘면서 남의 옷을 적시기도 하였다. 선생님께 물총을 쏘아서 선생님의 옷을 흠뻑 적시기도 하였다. 정말 물총 싸움은 재미있었다.

집에 오는 길에 삼일공원에 들렀다. 삼일공원의 놀이터를 내려와 비석들이 있는 곳에서 쉬었다. 문득 내 뒤에서 있는 비석을 보았는데 그 비석의 중앙에는 ‘3·1운동 기념비’라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기념비에 대하여 쓰여 있었는데 ‘3·1운동 기념비’는 일제시대 우리 조상들께서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독립운동을 일으

『산문부』
중등부 최우수상 수상작

뒷동산 산마루에 앉아

대 동 여 중
2~2 연 정 미

고요하고 킁킁한 한 밤중에 신을 딛고
마당 한 가운데 서서 하늘을 향해 바라
보았다. 아~아부지!

킁킁한 하늘 속을 향해 외쳐 보았다.
그러나 그말 한 마디가 하늘을 향해 부
딛히고 별들만이 눈가에 희미하게 보일
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아부지! 어디 갔어유! 왜 이래
돌아오지 않는다유!

설움에 겨운 나의 눈은 어느덧 눈물을

- 앞 페이지에서. 계속 -
꺾는데,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비
석을 세웠다고 하였다.

나는 이것을 읽고 우리 교장에서도 독
립운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 수
있었다.

관광지가 개발되는 우리 횡성, 독립 운
동이 벌어졌던 나의 고향 횡성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

머금고 밤 바람에 지쳐 떨고 있었다. 이
한밤중의 설움을 누군가 눈치채듯 귀뚜라
미 울음 소리도 오늘은 기척이 없다.

나의 아버지는 작년 요맘때 나와 우리
가족을 버리고 소리도 없이 돌아 가셨다.
그래서 밤만 되면 나는 마당에 나와 하
늘을 향해 별을 쳐다보며 한없이 울었다.
그러면서 옛날의 갖가지 추억들로 다시
되돌아 간다. 뚝방길로 아버지 자전거 뒤
에 타고 노래하며 목욕가던날 뚝고추랑
갯잎이랑 보리밥을 가지고 달려가던 날
을 생각하니 참을 수 없이 눈물이 마구
터져 나온다. 그러나 이제 다시금 옛 추
억을 생각하기 싫다. 하지만 밤만되면 왜
이리 아버지가 보고 싶은지 말이다. 가
슴이 조여온다. 축축한 밤에 한동안 밤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려니 저 곳인가 먹
구름이 밀려가는 모습이 마치 마귀가 빗
자루를 타고 날아가는 모습처럼 보여 그
만 깜작놀라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뒤를
돌아서 집을 쳐다보았다. 조그맣고 한적한

나의 집 지붕위에 하이얀 박꽃, 낮은 울타리엔 아버지가 심어준 강남콩, 방문을 향해 눈을 돌렸다. 어머니가 나의 모습을 보고 계셨는지 방안에 바느질을 하다말고 훌쩍이었다. 불쌍한 우리 어머니 나는 두 눈을 감았다. 자식들을 혼자서 키우시는 우리 어머니 정말 불쌍하다. 가난한 우리집에 이런 불행이 닥쳐오자 우리집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만큼 집안이 어려웠다. 그래서 나의 학비가 벌써 2주일째 밀리게 되었다. 학교에선 선생님이 매일 당부하시고 집에와서 어머니께 말씀 드릴러니 막상 말이 안 나오는 것이다. 돈 때문에 중학교를 졸업맞은 작은 오빠는 큰 공장에 가 있고 그위로 큰 오빠는 군인이고, 언니 둘은 몇년전에 모두 시집을 갔다. 그래서 집에는 늙으신 엄마와 나만이 이 밤을 지새워야 했다. 엄마는 매일 남에 집일을 해 주시고 와선 몸이 아프다고 하신다. 그런 늙으신 엄마를 보니 나의 마음도 아파온다. 언젠가 동네 아주머니와 말씀하시는 엄마의 목소리를 나는 몰래 엿들었다. 그 내용은 멀지 않아 앞으로 내가 중학교를 마치면 작은 오빠따라 공장에 취직시킨다는 말이다. 그말을 듣고 한참동안 멍하니 서있었다. 그 동안의 나에게 힘이 되었던 부푼꿈이 산산조각이 된 것이다. 하지만 늙으신 어머니를 보면 다시 고개를 떨구어야 하는 이 마음 정말로 이런 갈등이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고 있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나에게 어떤 이상한 증세가 오고 있는 것있었다. 매일

학교갔다 오기만 하면 뒷동산에 산 마루터에 앉아 멀리 있는 산을 멍하니 바라보는 생활을 매일 되풀이 하였다. 그러고는 눈을 감고 코를 벌렁이며 흙 냄새를 맡아 보았다. 앞으로 여기를 떠나야 하는 나의 마음엔 언젠가인지 모르게 자꾸 내가 사는 이 마을이 고장의 냄새가 그리워지는 것이다. 한동안 멍하니 저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무엇인가 희미하게 달려오고 있는게 아닌가! 나는 희미한 그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런데 그것은 다름아닌 늙으신 나의 어머니가 손에 흰봉투를 잡은채 달려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나에게 정미야! 정미야! 니 오빠한테 편지가 왔는데 형부들이랑 오빠랑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읍내에서 조그만 식당을 차려 부래. 그러면 너 중학교 고등학교 다 보낼수 있을 거라고 말이다! 하며 말이다. 나는 똑똑히 엄마가 하는 말쑈를 들었다. 한참 동안이나 산마루에 앉아 있던 나는 엄마의 그 말쑈를 듣고 막 달려가 엄마를 꼭 껴안고 영영 울었다. 그리고 생각한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게 모두 아버지가 하늘에서 우리 가족을 버리지 않고 돌보아 주신것이라고 믿습니다.” 하고 생각하며 꺾속말로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아버지도요’ 하고 속삭였다. 그리고 나에게 다시 새로운 큰 희망이 안겨졌고 이 마을이 고장의 흙냄새를 매일 맡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한없는 눈물과 기쁨이 섞여 가슴이 벅차온다. 어느덧 꼭 껴안고 있는 어머니의 살 냄새가 코를 콕 쏘여온다.

『산문부』
중등부 우수상 수상작

향수에 젖은 고향

대 동 여 중
2~4 한 지혜

햇님의 싱그러움과 푸르름이 산너머 들
녘의 소들을 살찌우는 5월의 풍경이다.
이름 모를 여름 벌레들의 연주에 맞춘 영
롱한 풀잎들의 노랫소리가 아릅이네 할머
니 귀를 스쳐 지나간다.

지금 마악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릅이는
아파트 놀이터의 플라타너스 나무 밑에앉
아 계신 할머니를 보자 금새 얼굴에는 환
한 함박꽃을 피우며 더위도 잊었는지 할
머니를 향해 달려갔다.

“우리 아릅이 유치원 다녀 왔나, 무척
덥지?”

“응, 할머니 근데 이거…….”

하며 아릅이는 유치원 가방속에서 봉숭아
꽃을 한아름 꺼낸다.

“웬 봉숭아 꽃잎이나”

“작년에 아릅이가 시골에 갔을때 할머니
가 아릅이 손톱에 붙들여 준 생각이 나
서……, 이런 꽃 우리 유치원뒤에 많
은걸.”

“에구 우리 아릅이가 똑똑하지, 그래
작년에 할머니가 해준것이 그리 예뻐어”

“응 할머니”

“그럼 집으로 올라가서 할미가 우리 아
릅이 해 줘야지.”

아파트 안에 들어가면 숨이 막혀 쓰러질
듯하다고 생각하시는 할머니이지만 아릅
이 대할 때만은 언제나 웃는 얼굴로 손
너를 대하신다.

부엌에다 넓다랗게 신문지를 펴신 할머
니께서는 넉적한 돌맹이 위에 백반과 봉
숭아가 다 쪼여지자 할머니께선 쪼그만
아릅이의 손톱위에 봉숭아를 놓고 정성
스레 비닐로 싼 다음 실로 꼬옥 꼬옥 묶
어 주셨다.

“아프니, 아릅아”

“아니, 할머니 이렇게 하면 작년 처럼
빨갱게 붙이 드는 거지?”

“그러엄, 에구 소나기가 올러나, 입맛
도 그런데 감자적이나 부쳐 먹어야 겠다.”

얼른 시장에 다녀오신 할머니께서는 감자를 갈고 파를 썰고 무척 바쁘게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만드셨다.

저녁때가 되자, 맛벌이 부부인 아름이네 엄마와 아빠는 집으로 돌아오셨다.

“아니 이게 뭐예요 어머니?”

상을 쩡그리며 할머니께 묻는 엄마의 모습은 별로 좋아보이지 않았다.

“으응 요즘 입맛도 없고 해서 감자적을 좀 부쳤다. 뜨끈 뜨끈한데 어서 먹어봐라!”

“오늘 모처럼 아름이에게 주려고 케익을 사왔는데 이렇게 감자적을 부치시면 어떡해요? 저것좀 봐, 쩡크대밑에 맨 봉숭아 잎이네, 원 구질 구질 해서 살수가 있어야지 참!”

하며, 안방문을 닫고 들어가버렸다.

아름이는 그런 엄마의 모습은 싫은지

“할머니” 하며 매달렸다.

“마음 쓰시지 마세요, 어머니. 저 사람이 원래 저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할머니를 달래자

“아니다, 여긴 내가 있을곳이 못되는 가보다.”

하며 할머니께선 긴 한숨을 내 쉬고는, 어두운 서울의 저녁 하늘을 불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리고 시골의 고향집을 생각하셨다.

할머니의 차남 바로 아름이 아빠의 동생인 민수 아빠를 생각하셨다.

시골이 싫다고 집을 나와서 지금 이 아름이 엄마와 결혼한 아름이 아빠는 어머님을 편안한 서울에서 모시겠다며 할머니를 이리로 모신것이다.

그러던 중 할머니의 경대위에서 하이얀 빛깔의 더욱 돋보이는 편지 하나를 발견하셨다. 「아범아 난 숨막히는 이런 곳에서는 살지못한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고 이 아름이할미는 고향으로 가서 살란다. 고향으로 가니 너무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유치원 방학하면 아름이 시골로 보내고……,」 아름이 아빠는 이 편지 내용을 보다 미친듯이 서울 역으로 달려 가셨다. ‘역시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새벽 이슬을 맞으며 한참을 걸어나 한평생을 살아오며 잔뼈가 굵어진, 종가집이 보인다. 할머니 께선 웬지 가슴이 뭉클 해지고 머니면 타국에서 지금 막 귀국해서 제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같이, 그런마음으로 산과 나무, 그리고 새들 그 무언가 할머니를 금의 환양해 줄 것만 같았다. 고향의 종가집을 향한 할머니의 그리움과 고향수의 발걸음은 이제 중천에 떠오른 아침햇살의 따사로움을 받아 더욱 바쁘게 재촉 받고 있습니다.



『신문부』
고등부 최우수상 수상작

내 삶과 사랑의 시작

둔내고등 학교
3~2 원 지 연

선!
어디에선가 별빛 가라앉는 소리와 개구리의 울음만이 들리는 고요한 밤입니다. 초저녁부터 들어부었던 별빛이 지금은 하늘 높이 걸린 달 주위를 선회하며 운통홀어져 있습니다.

시나브로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또 엄마는 혼잣말을 하십니다.

“비가 올라나, 별이 저렇게 들어부은 걸 보니.” 그러나, 말 끝에 젖어오는 낮은 한숨소리. 그것이 제 가슴 속을 한바탕 후벼 파고 갑니다.

선!
엄마의 중얼거림은 차라리 눈물 덩어리입니다. 안타까운 독백인 것입니다.

엄마의 흐려진 눈빛이 하늘로 돌려질때마다 제 가슴은 조금씩 식어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문득 문득 타들어가는 모를 발견합니다. 시원스런 한 방울의 비를 떨구지 못하는 너무도 파란 하

늘에 오히려 험기증을 느끼는 것도 그 때문 입니다.

엄마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라붙는 논바닥보다도 아니, 타들어가는 모들보다도 더 파닥이는 가슴으로 끝없이 비를 갈구하고 계신 겁니다.

선!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삼 사년마다 한 번씩은 재앙처럼 돌아오는 이 갈증에 속을태우며 점점 작아져가는 나를 발견해야만 하는 이것이 우리 진득한 현실인 것입니다.

당신은 그러시겠지요. 그까짓 농토, 쓰러져 가는 헌 집, 훌훌 벗어버리고 넓은 세상에 나와 작게 시작하라고, 시장에 오려도 몇 시간, 아파 병원에 가려도 수십리 길.

하지만 선!
한 때는 저도 그랬었습니다. 몸이나 아픈날이면 작열하는 태양 밑을 걸으며, 힘든

『산문부』
고등부 우수상 수상작

서원면 순례기

횡성 여자고등학교
2~2 한기자

우리들에게 파아라니 해맑은 웃음을 선사해주는 10월의 가을 하늘은 높이만하다. 황금같은 10월의 연휴에 우리 고장을 더 잘 알기 위해 서원면 순례를 떠난 우리 교지 편집부원들은 아침녘에 횡성을 출발해서 지금은 원성군의 시골길을 걷고 있다. 예전에는 지금의 원성군이 서원면 관할이어서 바로 서원으로 가지 않는다는 선생님의 말씀과 더불어 줄곧 걷고 있는 우리들의 시야에 하마비가 있다는 산현국민학교가 들어왔다. 칠봉서원에 있는 것을 이곳 산현국민학교 옮겨 놓았다는 하마비는 지금은 남아 있지 않는 칠봉서원을 말에서 내려 걸어가는 표시라 한다.

산현국민학교를 뒤로 하고 걸던 우리들은 우리의 양옆으로 지나가는 기암절벽의 수려한 장관을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기암절벽과 자연의 절경에 도취되어 걸던 우리들은 냇가가 펼쳐진 곳 옆에 열녀소라고 쓰여진 소를 발견 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 한 여인네가 자신의 정절을 지

키기 위하여 투신을 했더니—시퍼런 열녀소가 더욱 그 색깔을 고조시키며 우리들을 맞아준다.

오랫동안 절어서인지 우리들은 열녀소 주위의 냇가에서 열녀소에 어려있는 듯한 여인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점심을 들었다. 무릉도원이 따로 있느냐! 하는 마음이 내 가슴에 뭉클게 일어났다.

점심을 들은후 우리들은 노래도 불러가며, 때론 밭에서 농사일을 하시는 할아버지의 이마에 맺혀있는 땀방울을 바라보면서, 때론 지붕위의 둥그런 박의 가을의 향내를 맡으면서 그리고 시야에 보이는 탑이나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를 보면서 칠봉서원을 향했다.

칠봉서원에 도착한 우리들은 일곱개의 산봉우리인 칠봉의 수려한 경관을 먼저 사진기로 찍자 선생님께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희들 만약 지금 사진기가 없다면저 광경을 어떻게 남겨 두겠니?”

잘 보는 방법밖에 없다는 우리들의이이구 동성에 선생님께서는 요즘 현대인들은 사진기에만 의존해서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 먼저 사진기에 옮기려는 생각뿐이지 자신의 눈을 통해 마음속에 담아두려하지는 않는다 고 지적하셨다. 나도 선생님의 말씀에 동감하여 머리를 끄덕였다.

칠봉에서의 여운을 남긴채 이젠 서원을 향해서 산길을 가고 있다. 아픈 다리와 지친 모습은 보며 누가 데려다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연을 감상하며 나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 하니 마음이 흐뭇하다. 때가 10월이니만큼 산길 곳곳엔 산밤이 나무밑에 숨어서 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들은 볼때면 왠지 마음이 풍성해진다.

산을 넘어서 서원에 도착했을 때는 신천지라도 발견한 것같이 너무 기뻐 하루의 피로가 모두 가시는 듯 했다.

주민에게 서원의 유명한 왜가리와 백로에 대해 물으니 저어 쪽 산마루를 가리키면서 벌써 며칠전에 날아갔다고 말을 해준다. 그때 우리들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안타까운 마음은 가라 앉히며 민박을 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버스를 탔다.

다음날은 서원의 장날이었다. 버스에서 내다 보는 신발장수와 손님의 조그만 실량에도 코

스무스의 향내와 함께 내 마음을 느긋하게 만들어주었다.

풍수원 교회에 도착한 우리들은 그의 오랜 역사와 전통과 함께 여러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것도 들으며 성당내에 들어가 여러가지를 보았다. 난 천주교 신자는 아니지만 성모마리아상 앞에서 살며시 두손을 모아 작은 소망의 기도를 해 보았다. 지금까지 우리 고장에 대해 무지했던 저를 용서하세요./라고

풍수원 천주교회를 일정의 끝으로 서원엔 순례를 마친 우리들은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몸을 싣었다. 옆을 바라보니 일행들은 아무말없이 깊은 상념에 빠져 창밖의 지나가는 가로수만을 바라보고 있다.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우리 고장의 유적지와 자연과 하늘과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횡성에 살면서 몰랐던 것과 함께 내가 사는 고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10월의 황금연휴 참으로 알차게 보낸 것 같다. 앞으로 이를 마음속에 깊이 묻어두어 항상 우리 고장 횡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길가의 코스모스가 그 빛을 더욱 곱게 내 마음에 전해주는 가을날이다.

編 輯 後 記

5 卷제 “어사매”를 내게 되어 感懷가 無量하다.

사람도 5 살이 되면 完全히 서서 걸을 수 있고 人間으로서의 구실을 할때다. 무엇이던지 흥내내고 싶고 건드려 보고 싶으며 호기심에 차서 만져보는 行動의 나이다. 그러나 어쩐지 우리 어사매는 投稿者님들의 熱性이 식어 反對現象을 보이고 있어 섭섭함을 禁할 수 없다.

原稿가 줄어 들었을뿐 아니라 再次 3次 독촉해도 投稿치 않는다.

自由스럽게 글을 써도 근심없고 地方化 時代도 열리게 되었으니 더 많이 글을 써서 發表하고 싶으련만

어쨌거나 앞으로는 文化院 財政도 새해 支援金이 늘것으로 예상되느니 만큼 우리 文化院 會員은 누구나 自己意思를 “어사매”誌에 더욱 많은 文學創作活動을 해 주셨으면 하는 付託을 들여본다.

보다 多樣하고 재미있고 알찬 文藝誌가 되도록 1年來來 애써서 來年 6卷은 훌륭하게 製册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편 집 위 원 일동

인 쇄 : 1988. 12. 10

발 행 : 1988. 12. 25

발 행 인 : 횡 성 문 화 원 장

편 집 : 문화원 편집실

인 쇄 소 : 성 광 사